



해석이 있는 묵상, 묵상이 담긴 설교

묵상과 설교

6월호 본문: 베드로전서, 호세아, 시편
이달의 설교: 팀 켈러(리디머장로교회)의 “진리, 눈물, 분노, 은혜”

1. '묵상과 설교'는 목회자를 위한 매일성경의 파트너입니다.
2. 묵상과 설교는 각 분야의 신학 교수, 현장 목회자, 성서유니온 사역자들이 함께 만듭니다.
3. 성경읽기에서 매일설교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매일성경'의 본문으로 어린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돕습니다.

“설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 묵상의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상과 설교’는 설교자의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담임)

추천 | 김성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김지찬 교수(총신대학교 구약학),
성주진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신국원 교수(총신대학교 철학), 양승헌 목사(세대로교회 담임)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담임), 이승장 목사(예수마을교회),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정기구독료 | 1년 13만원(재구독시 1회분 연장 혜택)
- 결제 방법 | 인터넷, 전화 주문 모두 가능하며,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는 온라인(www.su.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 전화 주문 시 입금 계좌 | 우체국 013508-01-000624 국민은행 810-01-0256-534
농협 093-17-003342 외환은행 109-22-01169- 4
(예금주 | (사)한국성서유니온)
- 연락처 | 02-2202-0091(내선 114)

※ 체험판 '묵상과 설교'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보십시오.
다운받으실 곳: 홈페이지 [매일성경_기타자료실] www.su.or.kr

※ 묵상과 설교는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말씀 사역자에게만 정기구독을 통해 공급됩니다.

한국 대학생의 고민

손봉호(대표주간)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젊은이들의 고민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 한다.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면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나 같이 195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요즘 대학생들의 불평은 배부른 사람들의 엄살 같이 보인다. 그때 우리는 자주 굶었고 추웠으며 일자리도 없었고 사회는 무질서했고 암울했다. 나도 가정교사로 숙식은 해결했으나 할 일이 없어서 대학원에 들어갔다. 임대영장이 나왔을 때 떨듯이 기뻐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즘 대학생들처럼 불행하진 않았다. 전혀 막연하지만 꿈이 있었고 나름대로 낭만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지금 몇십 배나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공부하는 오늘의 학생들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엔 미래가 너무 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제도가 합리적이 되어서 과거처럼 허황한 꿈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주어진 상황과 갖춘 능력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도 일자리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생 수가 적어서 대학 졸업만 하면 언젠가는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 희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생 수도 늘었고 실력 있는 졸업생도 많아져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은 경쟁에 시달린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쟁심은 좀 특별하다.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average life satisfaction)는 조사대상 110개국 가운데 104위로 최하위에 속해 있다. 다른 분야의 눈부신 성취에도 한국인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도덕적 수준이 낮고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심은 철저하게 차세중심적(此世中心的)인 한국인의 세계관에 근거해 있다. 초월적인 신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 한다. 기독교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立身揚名)이다. 유명해 지려면 사람들의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유명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95점을 받고 2등 하는 것보다는 75점 받더라도 1등 하는 것을 더 원할 정도다.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 순위를 매길 때 다른 나라들은 전체 메달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 금메달의 수로 판정한다.

점수로 계산할 수 없고 아무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랑, 겸손, 양보, 배려, 절제 등 성경적인 가치에 충실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런 가치로 무장된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로 평가될 날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서 루터가 가르친 소명(召命, Beruf)의식이 약하다. 신발을 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소명보다 열등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은 한국 문화에서는 낯설다. 자질, 취미, 기호, 능력보다는 다수의 이목과 평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금전적 소득의 다과에 따라 직장과 직위의 수가 결정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 100만 명이나 되는데도 대졸 실업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에는 그런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높은 경쟁심 때문에 한국은 빠른 기간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발전하는가? 발전이 늦어지고 경쟁에 지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 이젠 심각하게 반성할 때가 된 것 같다.

기독교 대학생들도 이런 무한경쟁에 같이 휩쓸리고 같이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점수로 계산할 수 없고 아무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랑, 겸손, 양보, 배려, 절제 등 성경적인 가치에 충실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조만간 이런 가치로 무장된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로 평가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표지인물
왕소초 교수
(중국 절강대)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 10 기독교세계관 좌담 학술의 길을 통해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다_왕소초 교수
- 17 논평 공공신학과 한어신학의 관계가 중국학술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평_이상원

SPECIAL

- 20 성경적인 청소년관_김광석
- 24 2012 대한민국 청소년_김진욱
- 28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면_이장로
- 36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_이선일

COLUMN

- 02 대표주자 칼럼 한국 대학생의 고민_손봉호
- 06 발행인의 글 청소년 문제와 교회의 역할_김승욱
- 46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불륜드라마”에서 교훈(?)을 얻다_박진규
- 49 그림책이야기 아모스와 보리스_현은자
- 52 미술이야기 박환, 빈자(貧者)에게 바치는 헌사_서성록
- 56 음악이야기 배음과 푸가_이경원
- 58 가족학이야기 청소년의 폭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교회_김성은

CULTURE

- 42 포토에세이 푸른초장의 어린양_정일권
- 65 유머 유대인의 벡타이 가게_손봉호

BOOK REVIEW

- 61 서평 과학신학_유정철
- 63 서평 금식_최현일

NEWS

- 66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자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해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이상정
기자 임지연
녹취 남서희
사진 정일권
디자인 황정희
인쇄 안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청소년 문제와 교회의 역할

김승욱(발행인)

오늘날의 청년문제는 사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도 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로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므로 은퇴시기가 늦추어져,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의 일이므로, 교회는 아무런 할 일이 없을까요?

I.

가족(3월), 어머니(4월), 아버지(5월)에 이어서 이번 6월호에서는 “청소년”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보내면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취직, 결혼, 내 집 마련, 손자 양육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 문제만 해도 혼수비용이 크게 늘어 자신이 모은 돈으로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 정보업체에 의하면, 신혼방 꾸미는 것까지 포함하면 평균 결혼비용이 2억 808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빚을 내서 결혼하는 가정도 전체의 40% 이상 됩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요즈음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엄마가 자녀양육에 전념하던 과거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부모 집에 얹혀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세대는 손자 봐주느라고 심신이 쉴 날이 없습니다. 행복가족상담센터에 의하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기혼자 가구는 2000년 13만 8천여 가구에서 2011년 말에는 약 16만 가구로 15.9%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모가 재력을 갖춘 고학력일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서, 대졸 이상은 54.7%나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2011년 60세 이상 기준).

그래도 취업하고 결혼까지 한 자녀는 효자입니다. 실업상태의 청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 청년실업률은 8.5%(2011년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국가 통계 포털시스템을 근거로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서 실업률을 구해보니, 27.1%나 된다고 합니다(2011년). 실업자 32만 9천 명에 단시간 취업자 52만 3천 명, 취업 준비자 8만 8천 명 등을 합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466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는 것은 사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청소년 취업률이 10년 전의 절반에 불과하고,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도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 얹혀사는 자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청년(15~34세) 중에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포기한 소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숫자가 2003년의 75만 천명에서 작년에는 100만 8천 명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학벌이 높아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음에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미루고 있는 '캥거루족'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 일본은 캥거루족이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퇴자금마저 빨리 고갈되어, 청년실업 문제는 고령층의 은퇴생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II.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이 만연했으므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급하는 오늘날에는 일시적 끼니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문제는 사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도 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로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므로 은퇴시기가 늦추어져,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의 일이므로, 교회는 아무런 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교회도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근로자는 일자리 나누는 일에 동의해야 합니다. 교회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청년 중에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포기한 소위 '니트족' 숫자가 2003년의 75만 천명에서 작년에는 100만 8천 명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학벌이 높아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음에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미루고 있는 "캥거루족"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청년문제의 많은 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구조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시대적 변화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청소년 문제 해결에 교회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역임,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학술의 길을 통해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다

(사)세계관동역회, 정신대, 절강대 기독교와타문화 연구소가 공동개최한 한중기독교학술대회 참여자 왕소초 교수와 한어기독교연구소 소장 양씨난 박사가 방한하였다. 이들을 서강대 강영안 교수와 총신대 신국원 교수가 세계관동역회 사무실에서 만나 좌담을 나누었다. 통역에는 오동일 박사가 수고했다. _ 편집부



왕소초 교수(王晓朝 Wang Xiao-chao) 절강대의 전신인 항주대학 석사(철학 전공)를 마치고 영국에 유학하며 신학, 종교학을 전공하여 리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대 절강대 교수, 2000년 칭화대학 철학과 교수가 되었다. 2008년 절강대학 국가창신기지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를 맡아 현재 절강대, 청화대 양쪽 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양씨난 박사(杨熙楠 Yang Ssi-Nan) 홍콩 한어기독교연구소 창립자이며 소장이다. 현재 홍콩에서 국외 화교 학자들과 중국 국내 학자들과 연결해 한어 신학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어신학: 중국어로 번역된 신학

강영안: '제국문화와 기독교'라는 박사학위 논문주제가 흥미롭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

왕소초 첫 부분은 로마제국 말기 기독교 변증학자의 사상을 중국학자 입장에서 평가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명나라 말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포교해 중국 지식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에 근거해 중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되고 변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에서는 기독교가 선교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강영안: 로마 말기의 기독교 선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는데 명나라 말기의 경우 선교 이후 전례문제 때문에 포교가 금지되고 폐쇄되었다. 로마는 기독교화되었지만, 명나라는 말 기독교화 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왕소초 다수 역사가는 기독교가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로마와 중국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로마와 명나라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그것은 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전파될 때 현지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교연구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사상을 추적하면서 그 당시 당면한 역사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것이 과거의 역사이지만 오늘의 중국의 현실에 큰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 한국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신학자들은 어떤 사고를 하였는가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영안: 중국 선교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는 적응주의 선교를 했으며 철저하게 중국 전통 종교개념에 맞추어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으나 후임자였던 롱고바르디(Longobardi)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경향이 중국 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싶다.

왕소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도 많은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개념은 없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1998년도 연구성과(박사학위 논문인 '제국문화와 기독교')에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과)

강영안: 천주교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서 기존 한국문화와 마찰을 빚었다. 한국문화에 대항하는 분위기여서 피의 순교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천주교가 활발히 활동을 했지만 큰 마찰이 없었다.

신국원: 홍콩의 피터응이 발표한 "Christian High Education in China" 논문은 왕 교수의 발표내용과 공통점이 많았는데 공산체제 안에서 기독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 교파성 초월, 학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면에 동의하는가?

오동일: 한어 신학(중국어로 된 신학) 연구는 대학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다 참여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먼저 중국의 학문적 담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성 보다는 인문학적 접근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이 왕효초 교수의 관점이다. 대학 안에서 학술적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기독교가 확산하게 하였다고 본다.

신국원: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공산주의 제도하에서 수용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하교회 같은 경우 정부 쪽에서 반감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왕소초: 중국과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기독교 철학이라는 이해에서도 많이 다른 것 같다. 중국 대학 안에서는 기독교를 역사, 문화,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철학과는 기독교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다. 원래 종교학과 철학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종교학을 철학의 하부학과로 하여 철학과 안에서 종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르다. 중국 상황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들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기독교 철학이라고도 한다.

영국 유학 중 지도교수는 교부학을 전공한 분으로, 내가 학위를 마친 후에도 영국에 남기를 권했지만 나는 중국에 교부신학을 전파하기 위하여 귀국했다. 그 후부터 중국에서도 교부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은 매우 보편화되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기독교 담론을 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양씨난 목사가 홍콩에 한어기독교연구소를 만들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학자들의 저서도 내고 번역도 하고 장학금 주면서 중국기독교 연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한어기독교연구소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양 기독교 총서를 현재까지 150권 정도 번역 출판했다.

강영안: 교부총서도 중국에 나온 것이 있는가?

왕소초: 현재 중국어로 번역된 자료는 적지 않다. 어느 나라나 기독교의 뿌리는 교부학이다. 중국에 교부신학 관련 서적을 번역하면 단순히 교회 내부가 아니라 대학에 전파되기 때문에 지식인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다. 기독교 전반에 관한 인식이 확산 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서적 출판은 홍콩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 내부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도 자유로운 출판을 위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신국원: 홍콩에서 출판된 자료들의 배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왕소초: 중국 대학이나 신학교에 기증하는 방식과 중국 출판사들에 간자체로 교부신학 또는 고대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고 있다. 중국교회에서도 이를 쓰고 있다.

강영안: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왕소초: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홍콩 한어기독교연구소에서 나(왕 교수)에게 부탁해 번역 출판하고 후에 중국으로 들어와 출판했다. 중국 지식인들은 어거스틴을 위대한 사상가로 생각하지 위대한 기독교인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어거스틴의 작품은 서구 고전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어떤 이들은 나를 철학자로, 어떤 이들은 나를 종교학자로 분류한다. 그것은 나의 어떤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플라톤 전집을 번역했다고 하면 나를 철학자라고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말하고, 내가 교부 저서들을 번역했다고 하면 나를 종교학자로 말한다. 공공 담론 속에서 학문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신학도 철학으로 다뤄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근 인민출판사에서 현대중국철학자라고 10명을 선정하여 책을 펴냈는데 그중에 왕효초 교수가 있었다.)

신국원: 우리나라는 철학과 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성 면에서는 중국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의 교류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왕소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모인 학회라고 이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기독교라는 주제로 교류하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한국에 뿌리내리면서 나름의 한국적 개념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중국학자들에게는 새롭게 호기심을 갖고 연구해 볼 대상이다. 중국 기독교가 그 역사는 길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의 여러 경험을 배우고 참조할 가치가 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서구문화나 침략을 연상한다. 한국 기독교를 말하면 같은 아시아권의 문화이므로 이런 부분에서 훨씬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한국(기독교학문연구회)과 중국(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의 연구소마다 강점이 있으니 상호 간에 연구성과를 나누므로 서로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전에는 종교연구가 곧 종교비판이었지만 이제는 학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제재가 없어졌다.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 하고 있다.

강영안: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며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학문적인 연구로만 기독교에 접근한다면 신앙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나?

왕소초 개방 이후 학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기독교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회계층에 전파되어 다양한 역할을 했다. 기독교가 중국사회에 갖는 의미가 최근 10여 년간의 연구성과에 의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예로 정부 관리와 함께하는 학술 토론에서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정부 관리들의 인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현재 중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전에는 종교연구가 곧 종교비판이었지만 이제는 학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제재가 없어졌다.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개인, 특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종교신앙을 받아들일 때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강영안: 왕 교수는 지하교회와의 교류보다 대학을 통해 학문적인 교류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왕소초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성과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체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학문적 탐구의 과정으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번역했다. 그런데 그 책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대학에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교회와 관련 없지는 않다.

강영안: 미국의 엘빈 플란팅가 등 칼빈대학교 기독교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오동일 중국의 대학에서 기독교 연구는 독특한 상황에 부딪쳐 있다. 그래서 서구와 교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구적 흐름과 중국적 흐름이 상당히 다르다. 류샤오핑은 오늘에 절대 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적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기독교 연구자들은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기독교의 고전을 섭렵했으며 기독교의 가치의 긍정적인 의미를 인정한다. 왕 교수는 어떤 이들이 기독교를 서구의 것이라고 하면 이를 부정하면서 기독교는 이미 중국의 것이라 강조한다. 비록 그의 견해는 학문적 입장에서 취해 진 것이지만 오히려 그 학문성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변증성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다. 변호를 위한 변호는 때로는 그 자체의 설득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학술적인 객관성이라 하여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강영안: 서구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순전한 기독교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의 형성이나 기독교 공동체가 생성되었는가를 놓고 선교 전략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학술적인 접근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궁금하다.

오동일 왕 교수는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번역하며 알고 있다. 하지만 선교를 선언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된 저술들을 중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독교를 알리고 있다. 서구의 신학 고전을 깊이 이해하고 알리는 것은 삼자교회나 가정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담론을 교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대학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신학 담론의 주류는 민족주의 담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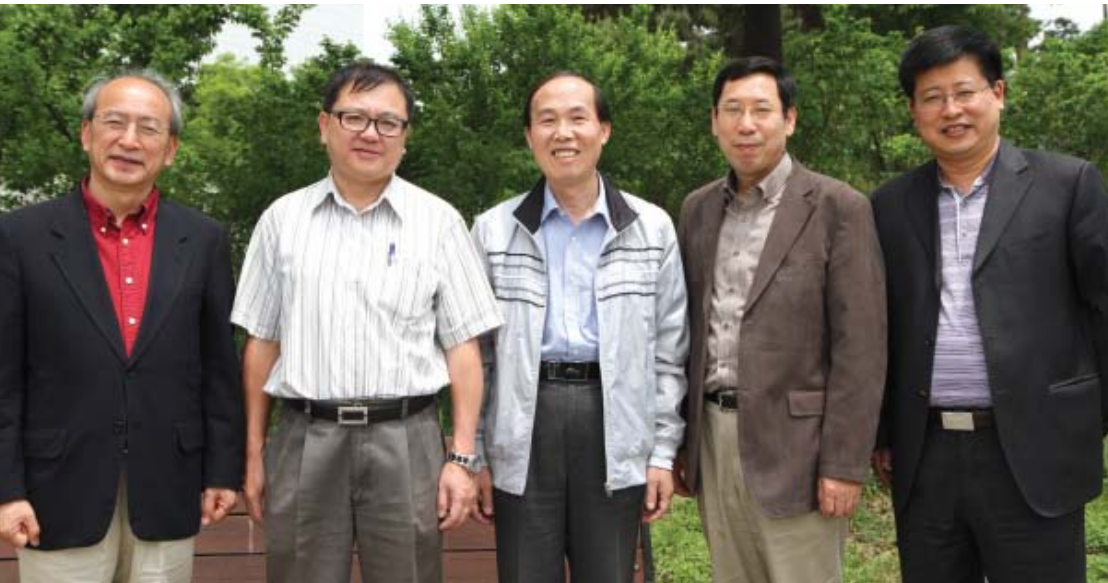
토착화이다. 한어 신학은 기독교를 민족성 담론으로 보지 말고 현대성 담론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강영안: 대학 내에서 기독교 학문을 접한 사람들이 삼자교회나 지하교회로 나아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동일 실제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 고전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접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학의 진수를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있다. 그 이후의 선택은 개인이 판단해 정할 일이다. 중국의 출판사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 출판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독교를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덕분이다.



통역을 하고 있는 오동일 박사(신학, 조선족)



강영안: 머우퉁산이나 뚜웨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가?

왕소초 어떠한 민족주의도 자기 민족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머우퉁산이나 뚜웨이밍의 유교적 보편주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강영안: 바디유의 경우 바울을 보편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왕교수님은 보편주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왕소초 보편주의란 여러 문화 속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보편주의란 용어를 보면 중국에서는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보편주의=서양가치=기독교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스스로 자신이 가진 보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한국이 보편주의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국이 주최하고 있는 세계박람회나 월드컵 등은 보편주의 추구와 연관되어 있다.

신국원: 한국에서는 오히려 교회와 선교에 치중하다 보니 신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양국이 서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일본도 공공신학에 치중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

에서 중국과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왕소초 서로 다르기에 대화의 의미는 더 깊다. 서로 같다면 대화가 필요하겠는가? 다르기에 대화의 공간은 넓으며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서로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싶다. ☺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Cross-Cultural Studies, 약칭 ICCS)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가 중국의 교육과 과학기술 및 문화발전을 위한 철학·사회과학 창신 기지를 설립하고자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개방적인 연구단지이다. 기독교의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타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현재 주임으로는 왕소초(王晓朝) 교수가 맡고 있다.

절강대학교(浙江大学)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있으며 중국내 대학 평가 서열 3위의 교육부직속의 대학으로써 국가 중점대학이다. 1897년 "求是書院"으로 개교했으며 1998년 3월 절강대학교, 항주대학교, 절강농업대학교, 절강과과대학교가 합병되어 현재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도서관은 중국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605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학생만 42,000여명에 이른다.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의 60%가 이 학교 출신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왕소초 교수의 “공공신학과 한어신학의 관계가 중국학술계에 미치는 영향” 요약문



왕교수의 논문은 중국에서 공공신학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I장에서는 신학의 공공성의 의미를 교의와 신앙의 해석과 적용을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공공생활을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시민, 사회와 정치생활의 형성을 돕는 노력으로 정의한다. II장에서는 교회의 신학에 머물러 있던 한어신학이 1978년의 중국사회개혁개방을 계기로 하여 공공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학술계가 현실 정치에 종속되고 계급투쟁의 틀 안에 있었으며 기독교에 대한 연구도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종교가 문화의 핵심으로 인정받게 됨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다방면에서 시작되었다. III장에서는 한어신학이 비교회성(교파초월성)이라는 중심적 특징에 인문성, 타문화성, 중국대륙의 기독교학술연구와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IV장에서는 한어신학이 지향해야 할 공공신학의 규범적 특징들을 제시한다. 1) 중국국정의 특성상 신학원과 신학과와 개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학자는 종교, 정치, 학술, 경제 등이 지니는 공공의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앙접어두기” 곧, 교리적 언어를 사용하는 호교적인 신학을 배제하고 학술적, 객관적, 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다른 관점의 학자들 및 연구기관들과 개방적으로 대화되 특정한 신학의 입장을 표방하거나 구조의 체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3) 중국의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어집단의 생활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답변해야 한다.

이상원 교수의 반론

신학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 신학은 개인구원의 문제에만 천착해서는 안 되며, 교회 밖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영역들이 지니는 신학적인 함의와 실천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은총론의 맥락에서 정치, 경제, 예술, 기타 모든 문화의 영역에 고유한 법칙과 언어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 영역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와 부패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부분들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들의 지도를 받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공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사회도 이런 삶의 중요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다. 왕교수가 제안하는 “신학자는 종교, 정치, 학술, 경제 등이 지니는 공정의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학적 이해를 반영한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왕교수의 설명이 요청된다. 1) 왕교수는 기독교신학을 호교학으로 만들지 말고 공공학술의 방법론에 순응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 괄목할 만한 정도의 호교학적인 신학이 발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에 체계화된 호교학이 존재한다면 전락상 호교학을 공공영역에 도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될 수 있지만 체계화된 호교학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호교학을 경계하고 나선다면 자칫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지 않은가? 2) 공공사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

법으로만 신학을 말하고 호교적인 내용을 말하지 말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공공사회에 대하여 특정종교가 가지는 의미와 해석을 말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것은 종교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3) 왕교수가 말하는 공공사회에 있어서의 공정 특히, 정치 및 경제적 의미의 공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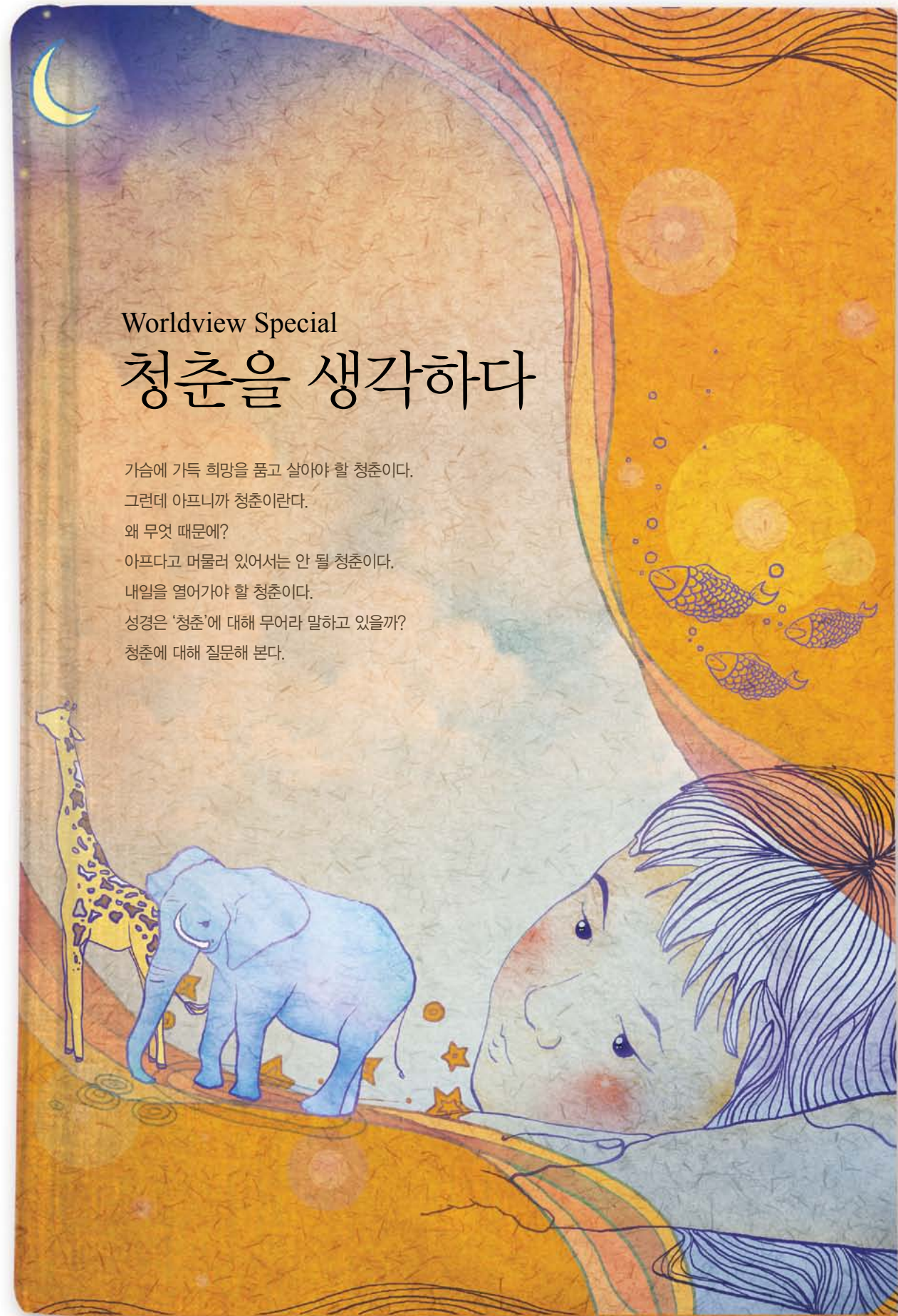
왕소초 교수의 답변 요지

- 1) 중국 기독교계에 호교신학이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은 중국교계를 향하여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본다. 본인은 중국의 교회신학과는 구분되는 한어신학에 국한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계 안의 문제인 호교신학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본인은 기독교에 대하여 호교적인 입장을 일관성 있게 취해 왔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비난이나,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일 뿐 중국에는 맞지 않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비난이나, 기독교는 이성적이고 학문적이지 아니라는 비난에 대하여 본인은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며, 기독교가 단지 서양의 종교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며, 기독교는 학문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종교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아마도 중국 기독교는 이 공헌에 대하여 본인에게 훈장을 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 2) 공공사회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본인은 동의한다.
- 3) 중국의 공공사회에서 이해하는 공정의 개념도 한국의 공공사회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인은 중국의 공공사회에서의 공정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1. 약자보호, 2. 빈부의 격차 해소, 3. 전체 중국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

(정리: 이상원)



이상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부교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석사(조직신학), 네델란드 캄펜 신학대학원 박사(기독교윤리)를 거쳐 독일 부퍼탈 한인선교교회 담임목사,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한국디국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 장현소망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Worldview Special

청춘을 생각하다

가슴에 가득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 청춘이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란단.
왜 무엇 때문에?
아프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청춘이다.
내일을 열어가야 할 청춘이다.
성경은 '청춘'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
청춘에 대해 질문해 본다.

성경적 청소년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요구하다

◎ 김광석(서울송곡교회 담임목사)

한국 청소년들의 사망 유형 중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초·중·고교생 자살자는 101명에 달했다. 매달 2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2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통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5~24세 청소년의 사망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자살로 조사됐다. 이 연령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007년 13.2명, 2008년 13.5명, 2009년 15.3명으로 3년간 계속 증가했다. 자살 다음으로 많은 사망 유형은 교통사고였다. 2007년에는 10만명당 9.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08년 9.2명, 2009년에는 8.4명이었다.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난 데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상급 학교일수록 수치가 올라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모두 101명의 학생이 자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명, 중학생 27명, 고등학교 73명이었다.

(경향신문. 2012년 4월24일자)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겪었고, 7명은 학교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2012 청소년 통계'를 2일 발표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청소년(9~24세)의 8.8%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는 15~19세의 경우 '성적 및 진학 문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12.6%), '외로움·고독'(11.2%) 등의 순이었다.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8.1%)과 '직장 문제'(15.8%), '외로움·고독'(15.4%) 등을 꼽았다. 청소년의 69.6%는 학교생활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56.5%)에 비해 1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설문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4.4%에 불과했다. 교육방법 만족은 36.8%, 교사(교수)와의 관계에 만족은 43.5%였다.

(경향신문. 2012년5월2일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고 있는 이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수치화된 통계로 그들의 삶을 엿보게 되니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통계로 나온 것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 긍정이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을 무겁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삶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그리고 과연 손을 쓴다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든다.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 처방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화되고, 그들을 위해 수많은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였지만, 통계상으로 나온 수치들로 볼 때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천수답을 경작하는 농부처럼 비 오지 않는 하늘 탓만 하며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어서 안 되었다면 이제는 성경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

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직접 실행하여 검증해보고,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면 지속해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성경적 청소년관,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성경적 청소년관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은 많지 않다. 다만 청소년 시절이 나타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청소년관을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등이 10대 시절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외에 다른 인물들의 10대 시절은 나와 있지 않다. 이 시대에 절박하게 필요하고 적용하고 싶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경 본문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청소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은 나이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면 성경에 있

는 모든 말씀의 적용 대상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장 19절~20절)”라는 말씀에서 “너희는”에는 성도인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성도가 된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유예 시켜 놓으라는 말씀은 없다. 성도라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구분 없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에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성경에서 말하는 실마리가 있다. 성경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성도라면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하지만 성경 밖에서는 청소년들을 피교육자적 관점에서만 보고, 언제나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그 결과 청소년이 스스로 할 가능성을 울타리에 가두고 죽이고 만다. 모든 통로가 차단된 청소년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좌절 외에는 없다.

청소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라

성경은 비록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지라도 성인들 못지않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요구한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는 예외 없이 누구나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봉사의 일을 해야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될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도 깨어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 필자는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지난 10년간 직접 적용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 이 시대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먼저 “온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훈련이다.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이 아닌 함께 가야 한다. 예배는 주일에

배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장(場)인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수련회와 같은 집회 형식의 예배를 말한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청소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예배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자동으로 삶이 변화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설교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삶의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에 필수불가결하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바로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통해 삶을 거듭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이라고 일컬

어지는 훈련은 청소년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관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제자훈련은 10주간의 단기 과정으로 밀도 있고, 집중력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학기를 피해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전후해서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인 말씀을 읽고 삶 속에 적용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습관으로 정착하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경건의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현장학습도 병행해 대한성서공회를 방문하여 성경의 역사를 알고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견학하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의 사명과 흔적을 찾게 해주며, 다른 교회의 예배도 탐방하게 하여 예배형식의 다양성을 체험하게 해준다.

또한, 제자훈련 이후에는 “리더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 한 사람

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한 사람을 위한 “봉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온전”의 과정을 거처서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봉사”다. 봉사 중에서 최선의 봉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몸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다. 리더훈련 역시 제자훈련과 마찬가지로 10주 동안 진행을 한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최소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비전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예배와 훈련을 통해 “온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한 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 훈련이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훈련 후에 봉사의 장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 봉사의 장은 제자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후배들을 맡아 후배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학생 리더”가 되는 것이다. 학생 리더로서 후배들의 신앙과 학업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후배들 역시 학생 리더 자신처럼 제자훈련을 받고 또 다른 학생 리더로 세워져서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 믿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라

필자는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거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학생 리더”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 후배들을 맡아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

는 것을 시행했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교사의 역할을 하게 했다. 이들은 강요나 억지가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학생 리더”로 섬기게 했다. 결코, 성인 교사들보다 뒤지지 않았다. 섬김과 봉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했다. 무기력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및 성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봉사의 일”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학업도 자기 주도적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후배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경적 청소년관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소년관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 역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전모가 드러난다. 신앙교육의 피교육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그들도 교육의 동반자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청소년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석 한양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M.A., Ph.D.cand)을 수료했다. 성도교회, 승동교회, 사랑의교회 주일학교 팀장을 거쳐 현재 서울송곡교회 담임목사와 학교법인 송곡학원 초빙교육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좌충우돌 청소년제자훈련 이야기”(국제제자훈련원)가 있다.



2012 대한민국 청소년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적성·흥미(33.9%), 수입(27.4%), 안정성(2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본인의 의사나 적성, 흥미와 상관없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꿈이 되어버렸다.

◎ 김진욱(의정부삼대지기 대표)

꿈과 희망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미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통계청이 2012년 5월에 발표한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0세~24세)의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가 38.6%, 직업이 22.9%이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청

소년이 8.8%였고,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 충동을 겪으며,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청소년의 모습이다. 도대체 무엇

이 청소년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향해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기뻐해야 함에도 미래에 대한 꿈이 없거나 천편일률적인 꿈(좋은 대학 진학)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는 꿈과 희망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어 버렸다.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적성·흥미(33.9%), 수입(27.4%), 안정성(20.3%) 순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본인의 의사나 적성, 흥미와 상관없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꿈이 되어버렸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거나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꿈과 미래마저 포기해 버린다. 그들에게 미래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연장되는 오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IMF 이후 청소년 가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2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중·고등학생의 가출 경험은 10.2%로 나타났으며, 가출 주원인으로는 부모님과의 갈등(51.3%), 놀고 싶어서(29.2%),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5.5%) 순이었다.³ 가출 전 가족 형태를 보면 가출 청소년의 71.6%가 편부모 등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문제로 말미암은 청소년 가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출 청소년 중 38.5%는 이미 초등학교 때 가출을 경험한다. 가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가출 중독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⁴

가르쳐 지키게 하라셨는데

어쩌다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고, 희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그들은 위축되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직업 적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신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획일적이고 통일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냥 좋은 대학,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조기에 발견하게 하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함으로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의 주된 목적은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다.⁵ 교회가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20절⁶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에 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예수의 지상명령은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키게 하라'는 명령까지를 포함한다. 즉 교회의 교육

1. 통계청, 「2012. 청소년 통계」, (서울 : 대한민국 통계청, 2012), 1.
 2. Ibid., 24.
 3. Ibid., 36.
 4.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mo_1?Redirect=Log&logNo=130117983319'
 5. 한미라, 「개신교 교회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5), 368.
 6.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김진욱, "교회교육에서의 다중지능개발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하여금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지키며 살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⁷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삶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토마스 그룸(Tomas Groome)은 그의 책 Sharing Faith(역서: 나눔의 교육과 목회)에서 기독교 교육의 실존적 목표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총체적 기독교 신앙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⁸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알게하라

다년간 교회학교 현장과 학교,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해오면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욕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그것을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그 방법의 하나로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

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가정과 학교, 교회는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오늘 하루를 계획할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재능과 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召命)이 있다.⁹ 소명을 직업에만 국한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명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은혜로운 행위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다.¹⁰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기에, 인간의 존재와 행위와 소유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것이다.¹¹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제사장, 왕, 선지자, 전도자, 선교사, 설교자, 사사, 행정가, 교사 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청지기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행하는 문화적 활동이다.¹²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8. 토마스 그룸, Sharing Faith 「나눔의 교육과 목회」(한미라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출판부출판국, 1997), 21.
9. 김재영, 「직업과 소명」 (서울: MP, 1990), 158.
10. 기독교문사, 「基督教百科事典」, 806.
11. 오스 기니스, 「소명」, 홍병룡 역 (서울: MP, 2000), 13.
12. 김재영, 「직업과 소명」, 116.

직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그 방법의 하나로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마 5:13; 마 13:33).¹³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직업을 잘 수행하도록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대로 충성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계발하여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¹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게 해야!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이 배우는 성경 지식과 삶이 일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일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성경공부 이외에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는 진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청소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계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회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야 한다.¹⁵ 가족의 역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 재능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하루하루일 것이다.

할은 더욱 크다. 청소년의 재능과 적성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그 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행복한 청소년 시기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 재능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하루하루일 것이다. 헛된 세상의 가르침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생각한다.

13. 토니 캄플로, 「일터에 사랑」, 이승희 역 (서울: 홍익사, 1993), 128.
14. 임선영, 「청소년 진로선택을 위한 성경적 부모역할」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56-57.
15. 전병로, 「교회에서의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대학원, 2004), 33.



김진욱 사)청소년문화회공동체상담사(031-826-0586/Fax031-855-0586/http://ddorae.org)
의정부상담사 대표 김진욱 목사(010-3350-5841)
지능술경기북부다중지능검사센터 센터장(031-874-0580/http://ddorae.multiq.com)



이정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뉴욕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독교경영연구원 이사장,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한국리더십학교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면,



Question 리더십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nswer 21세기 대한민국,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사회지도자를 양성하고자 1975년도에 비전을 받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브랜드인데 브랜드 가치는 사용자 경험으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난 불신자들이 우리를 모순덩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됨을 견디지 못한 다윗,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나선 느헤미야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면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겠다고 판단하여 그리스도인 사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00년부터 리더십학교를 시작했습니다.

Question 리더십학교를 통해 이루어 내신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nswer 학교의 설립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이며 우리의 미션은 '통일시대 사회지도자 양성'입니다. 현재까지 졸업생을 458명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비전과 미션을 갖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을 높이며 사회변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비전공동체입니다. 선후배 간에 계속 연락하며 서로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개인의 삶만 바라보며 달려가느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비전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재능과 물질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75년도에 기도했던 것들이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리더십 학교를 이끄시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았을 텐데 주로 어떤 문제였나요?

Answer 초창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동역자를 찾지 못하고 재정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초창기 3년간은 많이 울었습니다. 리더십학교의 1년 예산이 2억 원 정도인데 여러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었지만, 학생들을 인솔해서 국외연수까지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동문이 취업하면서 월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후원기관들도 많아져 초창기처럼 염려하며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와 비교를 하자면 교회는 교인들의 봉사, 달란트를 통해 교회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제자를 교육하고 파송합니다. 교회는 모임이 주축인데 우리는 파송해서 흩어지는 공동체인지라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졸업하고도 찾아오는 제자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Question 그동안 리더십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Answer 가장 큰 기쁨은 리더십학교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간절할 기도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 전에 리더십학교의 모든 제자와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종 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보람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제일 큰 기쁨도 제자들이고 가장 큰 보람도 제자들이기에 행복합니다. 모든 교육자, 목회자, 사역자들은 사람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람을 얻었기에 너무나 행복하죠.

Question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Answer 리더십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공통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취업문제입니다. 대학까지 힘들게 공부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졸업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드물게는 1~2년씩 기다려야 하는 수많은 학생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요즘 청년들이 왜 공부하고, 돈을 벌고, 결혼해야 하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기에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왔지만 왜 달리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달음질로 나중에 허망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 목숨 걸고 달려가도 전혀 아깝지 않을 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뿐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빛과 소금이며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SNS와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인데 그리스도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이며 동시에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세계관 운동 사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고통 중인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모세는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들었고 보는 것처럼 보았고, 안타까워한 것처럼 안타까워했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곧 자기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현실 가운데 애통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희생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대학, 청년들이 있다면 희생자들의 부르짖음과 이들의 안타까움이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세계관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안타까워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불러내어 연결시켜 주는 운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세계관 운동은 현장 속에서 찾아가고 만나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유럽, 아시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대를 위해서 땅에 내려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서셨고 죽기까지 복종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교회가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 마음도 가진 것도 높아져만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 종이 되어 섬기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그러한 낮아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성사회를 깨우는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기에 낮아지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지성사회가 갖는 함정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졸업생 인터뷰

Question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나에게 한국리더십학교는 어떤 의미였는가?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Answer 천오벳(7기): 석사 1학기 때 시작했는데 정체성이 자리잡아야 할 시기에 교회에서만 자랐다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술자리 문화부터 시작해서 직접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교회는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대학에서의 학문도 인본주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리더십학교를 통하여 강의를 듣고 관련 내용으로 함께 토론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학업에만 매진했다면 주말에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앞으로 살아야 할 길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각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원보다는 리더십학교에서 배운 것이 더욱 도움되었습니다.



Answer 오승우(4기):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으며 11년째 리더십학교를 이끌고 계신 교장 선생님(이장로 교수)의 헌신하는 모습에서 도전을 받는다.

Answer 김성은(5기): 핵심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입니다. 리더십학교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하는데 사회 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과거를 공유한 사람들이 입학했기에 이제까지의 신앙의 여정들이 공허하지 않았구나 하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에서는 각 동기들이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친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현재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 강사님들을 만나면서 역할 모델을 삼아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장성운(1기): 저는 학부, 석사 모두 경영학을 전공했고 군대를 포함하면 10년 가까이 학교에서 경제, 경영의 한 가지 관점에서만 세계를 보다가 리더십학교에서 다양한 학



생,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세계관이 넓어졌습니다. 10년을 지나고 보니 공동의 세계관을 가진 후배들이 누적되면서 동문이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시작되어 또 다른 공동체와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동역이 시작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 좋습니다. 이장로 교수님은 리더십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학부 때에도 보면 리더십학교에 대한 비전이나 청년들을 키우고 싶은 꿈,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성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리더십학교를 시작부터 하시는 과정도 보고 1기생으로 참여도 해보고 10년간 지속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모습에서 하나의 큰 나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비전을 주는 사람으로서 독심 있게 이루어가는 역할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Question 교수님에 대해서는?

Answer 한유경(9기): 저는 9기인데 수백 명의 동문이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같다는 느낌,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

주셔서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어 울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됩니다. ☺



심각한 삶의 문제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PURE
PLEASURE



쾌락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
쾌락을 좇아 사는 사람
쾌락을 엉뚱한 데서 찾는 사람
쾌락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이런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그래서 당신이 읽어야 할 책!

개작 제이스 지음 | 글공의 옮김 | 신국면형 | 344면 | 15,000원

쾌락이 흘러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한 삶이다

한 평생 창조론 연구에 매진해 온 양승훈 교수가 직접 들려주는

창조론 동영상 강의

6장의 DVD 총 24개 강의로 구성된
1셋트가 33,000원



양승훈 교수

현 VIEW연구부 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역임

학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BA)
KAIST 물리학과 반도체물성(MS, Ph.D)
위스콘신대학 과학사학과(MA)
위튼대학 신학과(MA)

저서
『다중격변창조론』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창조와 격변』 『창조론 탐구학습』 『창조론 대감파』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그네는 집이 가깝습니다』 『말에 빠진 오리』 등 다수

구입문의: 도서출판CUP T.02745-7231 F.02745-7239 E-mail.cup21th@paran.com

WORLDVIEW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
월드뷰
WORLDVIEW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

제40335호
발송유효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월드뷰 담당자 앞

□□□□-□□□□

CMS 출금이체 신청서

신청인 정보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출금일자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월납입일	매월 □ 25일 □ 30	

【 CMS 출금이체 약관 】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주시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액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종류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계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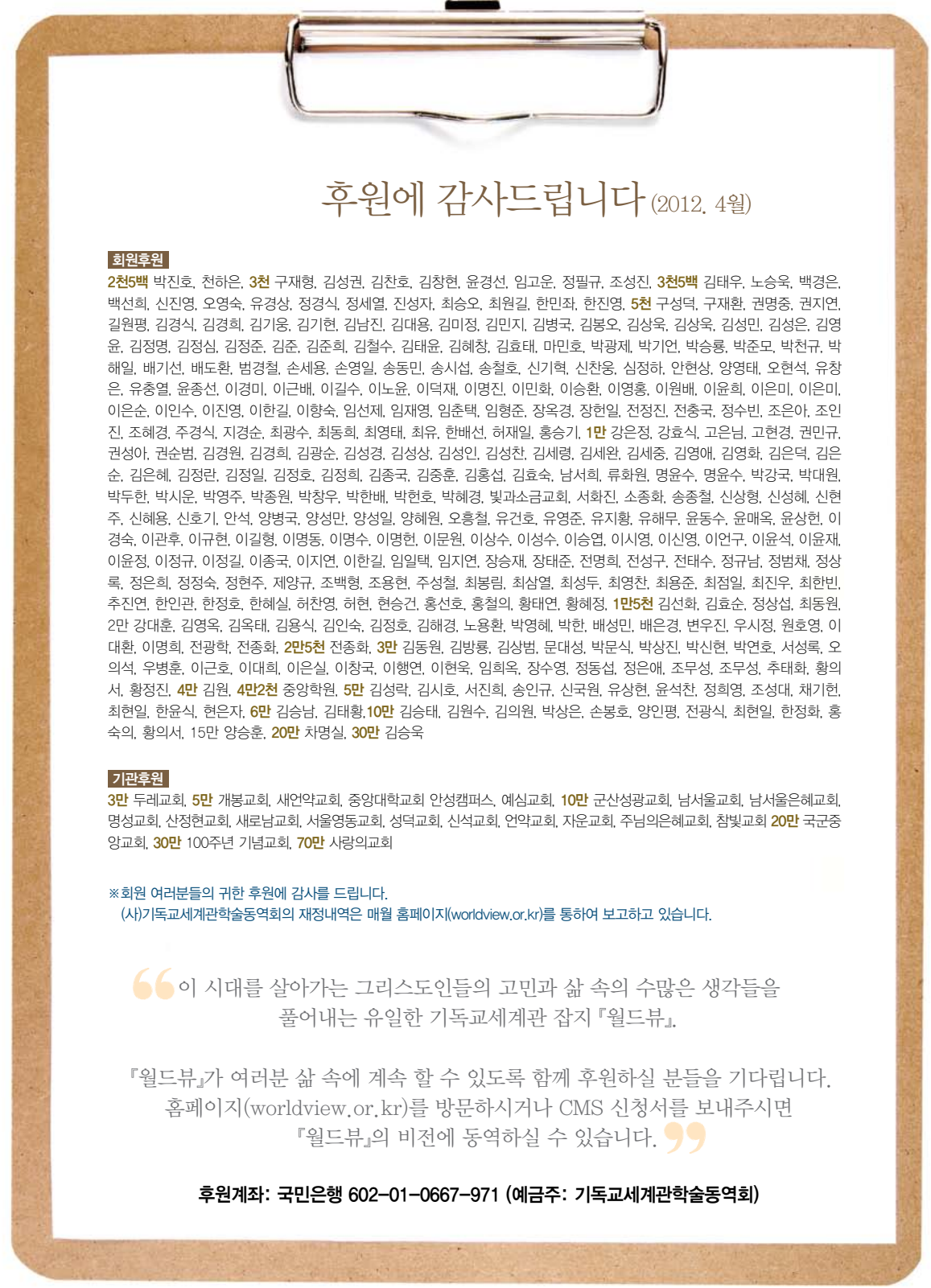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월드뷰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LDVIEW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 4월)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천하은,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찬호, 김창현, 윤경선, 임고운, 정필규, 조성진, 3천5백 김태우, 노승욱, 백경은, 백선희, 신진영, 오영숙, 유경상, 정경식, 정세열, 진성자, 최승오, 최원길, 한민좌, 한진영,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민지, 김병국, 김봉오, 김삼욱,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영윤, 김정영, 김정성,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윤, 김혜창, 김효태, 마민호, 박광제, 박기연,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오현석,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은민, 이은순, 이인수, 이진영, 이한길, 이항숙, 임선제, 임재영, 임준택, 임형준, 장옥경,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수빈, 조은아, 조민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유,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1만 강은정, 강효식, 고은남, 고희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광순,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성찬, 김세령, 김세완, 김세중, 김영애, 김영화, 김은덕, 김은순, 김은혜, 김정란, 김정일, 김정호, 김정희, 김종국, 김종훈, 김홍섭, 김효숙, 남서희, 류하원, 명윤수, 명윤수, 박강국, 박대원, 박두한, 박시운, 박영주, 박종원, 박창우, 박한배, 박헌호, 박혜경,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소중화, 송중철, 신상형, 신성혜, 신현주, 신혜용, 신호기, 안석, 양병국, 양성만, 양성일, 양혜원, 오홍철,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동수, 윤매옥, 윤상현, 이경숙, 이관후,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승연,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장규, 이장길, 이종국, 이지연, 이한길,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태준, 전영희, 전성규, 전태수, 정규남, 정범채, 정상록,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주성철, 최봉림, 최삼열, 최성두, 최영찬, 최용준, 최정일, 최진우, 최한빈, 추진연,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허찬영, 허현, 현승건, 홍선호, 홍철의, 황태연,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김영욱, 김옥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김해경, 노용환, 박영혜, 박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우시정, 원효영, 이대환, 이명희, 전광학, 전중화, 2만5천 전중화,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문대성,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박연호, 서성록,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창국, 이행연, 이현욱, 임희옥,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조무성, 조무성,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 김원, 4만2천 중앙학원, 5만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유상현, 윤석찬,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김승남, 김태형,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양인평, 전광식, 최현일, 한정화, 홍숙의, 황의서, 15만 양승훈, 20만 차명실, 30만 김승욱

기관후원

3만 두레교회, 5만 개봉교회, 새언약교회, 중앙대학교회 안성캠퍼스, 예성교회, 10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성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30만 100주년 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방문하시거나 CMS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월드뷰』의 비전에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Question 청년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4대째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3 때는 보조교사를 하였고 고1 때부터는 정교사가 되었지요. 고1 때, 거절하는 아버지로 부터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인턴 시절부터 지금까지 청년 및 청소년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화, 수, 목, 금 주 4일은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월요일은 너무 바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병원에 온종일 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진료하다가 오후 5시가 되면 무조건 병원 문을 나섭니다. 목요일의 청년 사역자 모임과 더불어 대구, 한동대, 진주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합니다. 되돌아올 때의 피곤함은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만 주시는 마약 같은 보약입니다.



이선일 울산소망정형외과 병원장 이면서 울산태화교회 교육사, 장로이다. 부부가 함께 청년 사역자, 교육 선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20년 넘게 정학회를 운영하여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 슬하의 세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11년 미스코리아 이성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1998년 12월부터는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이라는 양 기둥으로 설립된 HRC(소망학당, Hope Retreat Center)라는 청년연합공공체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150여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딱히 “동기는 이것이다.” 라기보다는 전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들과 얘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거의 30분 이내에 그들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이지요. 굳이 동기를 얘기하려면 청년사역에 행복함을 느끼다 보니 계속하게 되었고 그것이 청년사역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Question 그동안 사역을 통해 얻은 성과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년사역을 통하여 저 자신이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 얻은 성과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 자신의 풍성한 행복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지체들과 저 자신에게조차도 분명한 정체성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지 않은 한 번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 등 삶의 핵심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통해 우선순위와 삶에서의 가치치기를 잘 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역 동안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들라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소중한, 그리고 소박한 지도자를 각 분야에 배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지도자와는 달리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요 전 세계 열방을 품은 150여 명의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

이 실력만큼이나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지요. 이들의 만남과 교제는 더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를 1998년 이래 계속하여 변함없이 멘토링하며 지속해 온 것입니다. 이들은 저희 부부의 멘티이자 하늘나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이며 보물이기도 합니다.

Question 청년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였나요?

Answer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부 청년들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며 무기력할 때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엄청난 자기 연민과 비교의식 속에서 자괴감으로 허우적거리거나 아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딱히 “동기는 이것이다.” 라기보다는 전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아무리 격려하고 세워 주려 해도 이미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려주고 싶고 속이 터질 듯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계속 시도해 보지만 놀랍게도 그럴수록 가학적으로 자신을 확대하며 즐기려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둘째는 많이 기대하며 땀과 눈물로 양육하였던 제자가 어느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때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오해를 안고 떠납니다. 왜 저들은 오해를 풀려는 시도조차 않을까를 의아해하며 고민을 하지요. 설상가상으로 드문 경우, 자신의 오해를 저에 대한 은근한 비난의 화살로 돌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 저의 귀에 꽂힐 때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셋째는 오랫동안 양육하였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청년들을 볼 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잘 되었음에도 남을 배려 않고 받은 것의 일부라도 후배들을 지원하지 않지요. 이런 뻘뻘한 청년들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Question 그동안 청년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Answer 20여 년 이상을 청년사역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들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숙하게 양육된 형제자매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주례를 부탁할 때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주례를 함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주례의 조건이 아주 엄격하지요. 신랑 신부는 반드시 저희가 오랫동안 양육하였던 지체에 한하며 더 나아가 양가 부모님의 동의와 그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결혼비용이 500만원 이상이던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그들은 경쟁력이 없기에 교회 내에서는 활기찬 듯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요. 이때 저들은 자신들의 준비부족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회의하게 되지요. 한국교회 내의 청년사역자들은 교회 안 청년들의 전문성에 관심을 뒤야 하며 그들을 마음껏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한 제자 부부를 아내와 함께(저희 부부는 2:2 결혼식을 합니다!) 마음껏 축복하며 주례를 하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본인의 지난날에 감사하며 첫 월급을 타서 가져올 때입니다. 결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소중한 지체에게 주저함 없이 후배를 위하여 너의 이 땀과 눈물을 장학금으로 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제자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사역자의 보람이지요.

셋째는, 현장에서 지난날의 저를 벤치마킹하여 부부가 동역하며 저희 부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강의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제가 양육하였던 그 제자의 강의를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하며 지난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 너무 보람 있습니다.

Question 크리스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가장 먼저는 영성과 전문성의 부조화로 말미암은 자괴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은 뛰어난 듯한데 전문성이 약한 청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쟁력이 없기에 교회 내에서는 활기찬 듯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요. 이때 저들은 자신들의 준비부족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회의하게 되지요. 한국교회 내의 청년사역자들은 교회 안 청년들의 전문성에 관심을 뒤야 하며 그들을 마음껏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전공과 직업의 부조화입니다. 점점 더 취직이 어려워지다 보니 우선은 취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의 전공과는 한참 거리가 먼 직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청년들은 그동안 기도해왔던 자신의 비전을 혼란스러워합니다. 청년사역자들은 훈련의 과정(Training Process)과 직업으로서의 소명(Vocational Calling)을 잘 설명하여 주고 청년들을 지속해서 격려해주었으면 합니다.

셋째는, 겨우 직장을 구하여 들어갔는데 전혀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니라(요일5:4).”라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므로 순교하기까지 함께 나아가자며 더 많은 격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세상이 만만치 않으며 이미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있는 지체이기에 사단은 어떻게든 공격하여 그 싹을 자르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간파하여 청년사역자로서 그들을 잘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넷째는, 나이가 들어감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며 처음 가졌던 비전들이 쪼그라드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비전은 싱글 때의 반으로 줄어들고 아이가 생기면 결혼 때의 반으로 줄어들지요. 어느 날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본인도 당황합니다. 동시에 지난날 함께 하였던 그 주변의 눈들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게 되지요. 그리하여 예전의 지체들을 피하거나 틈만 나면 그들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지요. 그러나 실상 내면적으로는 패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체들에게 지금 현실의 소중함과 더불어 미래의 비전을 되찾을 수 있게 기도와 격려가 많았으면 합니다.

다섯째는, 잘 준비된 자매들의 고령화입니다. 형제와의 비율이 현저히 역전되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중 세월은 흘러가 버리지요. 대안이 있다면 형제들을 특히 잘 양육하여 자매들의 짝을 준비해 주든지 최근의 대세인 연상녀 연하남으로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사역자의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비저너리(Visionary)의 단순화 및 획일화는 21세기 100년을 책임질 지도자인 청년들을 한쪽으로 모는 폐해를 양산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여 평신도 전문 청년사역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며 한국 교회 안의 전문인이나 달인들을 특별히 훈련해 청년들의 멘토(Mentor)로, 비저너리(Visionary)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Question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세계관 운동 사역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Answer 먼저 취직 문제에서, 청년들이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였으나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안 되었을 때 따스한 마음과 격려를 아끼지 말되 교회에서 직장이 될 동안 습



고를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박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신앙심이 깊은 청년들을 간사로 채용하여 그들이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고 주변에 떳떳하며 본인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과 재정적인 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간사로 있던 동안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였다면 신학을 할 수도 있겠지요. 더 나아가 교회 내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를 함으로써 본인도 성경에 해박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고 후배인 아이들에게 성경과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관점을 성경에 기초하여 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이상한 시대정신으로, 더 나아가 혼돈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지 못하게 되어 크리스천 청년들은 그들의 주변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세계관 운동은 또 하나의 붐이나 학문으로서가 아닌 실제적 삶으로의 몸부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하여 말은 잘하나 정작 자신은 반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비아냥, 예를 들면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의 삶이 오히려 더럽다 등등에 대하여 겸허히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

연광흠(이선일 원장 제자)

대학 입학 후 교회를 떠나 한참을 방황하다, 결국 삶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제 마음 가득한 마음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다시 찾은 기쁨과 은혜 중에 이렇게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저도 다시 훈련받고 당신께 귀한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선일 선생님이세요. 당시 출석교회의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셨던 이 선일 선생님을 멘토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 훈련을 받은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쉽고 재미나게 성경을 이해시켜 주셨고 때로는 호통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자상함으로 지난 14년 동안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훈련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결혼할 때 부부주례를 서 주셨고, 결혼 5년 차인 현재까지도 애프터서비스를 해 주고 계십니다. 또 뺏속에 있는 제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선일 선생님을 통해 바뀐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젠가 나를 그분의 귀한 도구로 꼭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현재 저는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국외 선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 국을 다니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성령의 현장들을 카메라에 담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한 분인 이 선일 선생님은 제가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제 선생님과 같은, 누군가의 귀한 선생이 되겠죠.

(사진은 연광흠, 조아정 부부의 결혼사진. 이선일 원장이 주례를 하였다)





푸른초장의 어린양

대관령에 위치한 양떼목장은, 6월의 푸르름에 잠겨
오름직한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고도가 높은 동산을 올라가다보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 온다.

헝크러진 머리걸을 고쳐보려 애쓰다가 문득,
때로는 이런 자연스러움도 좋다고 생각했다.

.
.

한참을 올라가니 시야 가득히 양떼들이 보인다.
푸른초장에서 유유히 풀을 뜯어 먹는 양들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평안함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정일권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80350>





“불륜드라마”에서 교훈(?)을 얻다

· 네 편의 드라마로 읽는 행복한 부부의 조건

이번 호에는 불륜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불륜’이라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규범, 도덕을 거스른다는 뜻으로서, 주로 가정을 벗어난 외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요. 우리는 불륜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재빨리 “불륜드라마”라 구분 짓는데 익숙합니다.

◎ 박진규(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또, 불륜 드라마는 불륜을 미화하고 나아가 불륜을 조장한다는 것도 지나친 단정입니다. 거기에는 시청자를 너무 얽잡아 보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도 감동을 얻지만, 불행이나 비극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공감합니다. 때로는 그 설정이 너무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 삶의 한 부분을 돌아보고 감정이입을 하기도 합니다. 불륜상황은 그런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 JTBC의 드라마 <아내의 자격>이 종영되었습니다. 시청률 1%를 넘기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만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종편 채널들 가운데 이 드라마의 4%대 시청률은 지금까지 최고기록입니다. 순간 시청률은 5%를 넘겼다는 기사도 있었지요. 그런데 시청자들 사이에선 원래 제목 대신에 “대치동 러브 어페어”라 불리며 입소문이 퍼진 이 드라마는 이른바 “불륜드라마”입니다. 가정을 가진 40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가정을 떠나 그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번 호에는 불륜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불륜’이라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규범, 도덕을 거스른다는 뜻으로서, 주로 가정을 벗어난 외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요. 사실 멜로나 액션, 추리 등과 같이 불륜이라는 드라마 장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륜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재빨리 “불륜드라마”라 구분 짓는데 익숙합니다.

몇 해 전부터는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에 “막장”이라는 또 하나의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막장이라면 극 전개의 인과관계가 너무 비약적이거나, 설정 자체가 억지스러워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드라마를 말하겠지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가운데 막장이라 불려도 억울하지 않을 드라마가 많은 게 사실이고, 한데 묶어 막장으로 몰아버릴 만큼 이런 부류의 드라마가 너무 많아 문제가긴 합니다만, 각각의 작품성에 대한 평가를 접어둔 채 불륜을 그렸다는 이유로 막장이라 치부해버리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불륜드라마를 스토리텔링 방식의 하나로 보면, 우리는 불륜드라마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는 언제나 가족의 결핍, 부부의 결핍을 배경으로 하고, 불륜은 그 결핍의 탈출구 노릇을 하는 새로운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가정을 벗어난 사랑만큼이나 부부의, 가족의 결핍이 중요한 이야기 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륜드라마를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사랑을 가정 밖에서 찾으려 우리를 부추기는 해로운 존재로 단순화시키거나, 또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곧 불륜을 저지르지 모를 위험천만한 열간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륜을 다룬 드라마를 통해서 완성된 가족의 모습을, 행복한 부부의 조건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륜을 다루었으되 절대 막장이라 폄하할 수 없는 드라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된 설정이나 단순 권선징악으로 포장된 공허한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본성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들 말입니다. 그중에서 1980년대부터 10년마다 하나씩 꼽으라면 다음 네 작품을 들겠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우리 사회가 불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부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전혀 억지스럽지 않게 말해줍니다.

먼저, 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MBC의 <모래성>(1988)을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드라마작가인 김수현의 작품이었지요. 김혜자, 박근형, 김청 등 당시 최고 배우들의 열연으로 유명했습니다. 제목처럼 이 드라마는 가정이 ‘모래로 쌓은 성’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당시로써는 대단히 도발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40대 후

반의 변호사가 30대 노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부인 현주가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 현주는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남자의 “바람”은 한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며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가 참아내야 한다는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꽤 차이가 나는 결말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으로 끝내지 않았다면 그 드라마는 존재할 필요도 없겠지요. 남자들이 말하는 ‘별일 아닌 일’을 그렇게 종결짓는 여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6년에 방송된 MBC 미니시리즈 <애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동근과 황신혜가 주연을 맡았는데, 드라마만큼이나 두 사람의 패셔너도 화제였습니다. 유동근의 잉크색 와이셔츠와 황신혜의 머리핀이 큰 인기를 얻었지요. 거리에 나가면 삼입콕이었던 “I.O.U”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 국정감사에서 <애인>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선정적 드라마라고 지적했던 국회의원들은 시청자들에게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엄청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저마다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30대 남녀를 그렸습니다. 유치원생 딸을 둔 이벤트 회사 차장 여정은 역시 한 아이의 아빠인 조경회사 사장 운오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된 가정에 충실하지만, 너무도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과 권태 속에서 새로운 사랑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게 돌아가 부부 사이에 잃어버렸던 사랑의 애뜻함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헤어지고 1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난 이들이 “잘 지내시죠?”라며 서로

의 안부를 묻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이경영, 이요원, 김미숙 등이 출연한 표민수 감독의 KBS 주말극 <푸른안개>(2001)를 들 수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나름 마니아 팬을 가지고 있었지요. 40대 중반으로 기업체 사장인 성재는 스물세 살의 댄스스포츠 강사 신우의 당돌함과 순수함에 끌립니다. 그 과정에서 성재는 현재의 이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삶과 장인의 사업을 물려받은 뒤 장모의 무시와 처가식구들의 견제에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별했던 아빠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 빈 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신애는 성재에게서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릴 적 엄마의 외도를 목격한 상처가 여전히 아픈 그에게 성재는 큰 울타리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이 둘의 만남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상처를 직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곤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힘을 제공받습니다. 성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한 후 어릴 적부터의 꿈이던 작은 서점을 차리고, 신애도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외국으로 떠납니다. 제목만큼이나 어스름한 새벽처럼 분명치 않은 이 두 사람의 심리와 감정을 세심하게 짚어낸 작품이었지요.

앞서 언급한 <아내의 자격>은 201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할 만합니다. 전업주부이면서 방송기자의 부인인 서래와 대치동 유명학원 원장의 남편이자 치과 의사인 태오를 주인공으로 하지요.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인 가정을 가진 서래와 태오의 사랑은 두 사람에게 혹독한 대가를 가져다줍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들은 서로에게서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온갖 욕망, 즉 교육열, 부, 권력, 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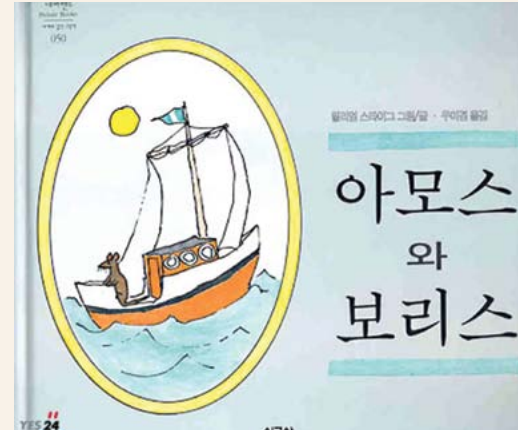
계급 등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습니다. 서래는 “바람피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 뿐 아니라 부당한 위자료료 비롯해 아들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위선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택합니다. 태오 역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욕망의 길을 선택한 부인과 결별하고 서래와 새로운 삶을 꾸림으로써 그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불륜을 소재로 하지만 결국 완성을 향한 부부상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성>이 나온 때부터 <아내의 자격>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불륜을 둘러싼 가족과 부부의 결핍을 통해 여전히 부부는 행복과 사랑의 보루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래성>이나 <푸른안개>가 보여준 결핍은, 부부 사이란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강요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서로 위하고 배려하는 상호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애인>과 <아내의 자격>이 들려준 결핍은, 부부가 항상 사랑의 애뜻함과 떨림을 바탕으로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반자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부부는 너무도 깨어지기 쉬운 껍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이 드라마들은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24년의 세월은 이제 제도로서 가족이 갖는 구속력이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어쩌면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혹시 당신의 부부에게 결핍된 건 없냐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어서 회복해야 할 건 뭐냐고, 불륜을 다룬다고 전부 막장드라마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겠지요. 이 드라마들을 놓친 분들은 언제 시간을 내서 한 번 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모스와 보리스

윌리엄 스타이글 저
우미경 역
시공주니어 출판

현은재(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번 달에는 윌리엄 스타이글(1907-2003)의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래전부터 번역본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외국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1930년부터 뉴요커(New Yorker)에 만화를 연재하다가 61세에 그림책을 창작하기 시작하여 20권이 넘는 그림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슈렉」,「멋진 뼈다귀」,「부릉통한 스텍키」 등이 있으며 글이 많은 동화로는「아벨의 성」,「진짜 도둑」이 있습니다. 그는 칼 데콧 메달, 뉴베리상, 안데르센 상 등 그림책과 아동문학 작가에게 주는 주요한 상은 거의 다 받았으며 소위 위대한 이야기꾼(great storyteller)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Amos and Boris,(1971)는 다산기획 출판사가 1994년에 제목을 「생쥐와 고래」로 번역하여 출간하였으며, 그 후 1996년에 시공 주니어 출판사에서 「아모스와 보리스」로 원제 그대로 번역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그림책의 내용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 텍스트는 다산기획의 번역본「생쥐와 고래」에서 인용했음을 알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모스’라는 이름의 생쥐와 ‘보리스’라는 이름의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5월호에 소개했던「아름다운 책」과 비교해볼 때 글 언어의 비중이 그림 언어보다 높은 작품이어서 그림을 보지 않고 글만 읽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림을 함께 보아야 그 두 캐릭터를 더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잠깐 실험을 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림책 연구자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누가 글만 읽어주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음에는 자신이 그림과 함께 글을 읽는 식으로요).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부분은 바다를 사랑한 아모스가 바다로 모험을 떠났다가 물에 빠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데까지,
2. 두 번째 부분은 아모스가 보리스를 만나 친구가 되고 집으로 돌아와 헤어질 때까지,
3. 세 번째 부분은 보리스가 태풍에 밀려 바닷가로 떠밀려왔다가 아모스의 기지로 살아나 두 친구가 다시 작별하는 결말까지입니다.



물-바다-물이라는 배경의 구성은, 이 이야기의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과 바다라는 두 공간은 두 주인공 각 각의 서식처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주인공 아모스와 보리스의 캐릭터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바다를 사랑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감성이 풍부하며 사색적이고,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할 뿐 아니라, 항해 준비에서 드러나듯이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자존감도 높은 인물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풍겨오는 냄새,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작은 조약돌을 굴리며 파도가 쓸려 나갈 때 나는 소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면서 광대한 바다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 가득 신비감을 맞춥니다. “아모스는 바다 여행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 아모스는 바다 여행의 신비로움과 모험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득히 삶에 대한 사랑이 피어올

랐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자신의 존재를 비교하면서 그 신비감은 절정에 달합니다. “아모스는 생쥐호의 갑판에 누워 초롱거리는 별이 가득 담긴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둘러싼 넓고 넓은 우주에 비해 자신은 한낱 작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에서 아모스는 구원자, 보리스를 만나는데 아모스는 이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잊지 않습니다. 보리스에게 자신은 물고기가 아니라 젓먹이 동물인 생쥐이며 심지어 “가장 진화된 동물이지. 나는 물에서 살아.”라고 으스댁니다. 그렇지만 보리스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응수하지요. “이런 맏소사! 나도 젓먹이 동물이야. 하지만 나는 바다에서 살아. 내 이름은 보리스야.” 보리스가 자신은 전 세계 일곱 개의 대양에서 모이는 고래들의 모임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고 하자 아모스는 더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리스는 “그러자꾸나. 아주 신기한 모험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너처럼 신기한 동물과 사귀어 본 고래는 없었을 거야! 자, 어서 내 등에 타.” 라며 쾌히 승낙합니다.

이제부터 아모스의 바다 모험 대신, 보리스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리스의 모험은 아모스의 모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모스는 바다로 모험을 나갔지만, 보리스는 아모스와 ‘친구되기’에 끝낸 것입니다. 같은 포유류인데도 서식처도, 크기와 생김새도 아주 다른 아모스에게 호감을 느낀 보리스는 그와 기꺼이 시간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 위에 올라가 기분 좋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 모종의 규칙(보리스가 잠수할 때는 아모스에게 신호를 보낸다)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둘은

같이 이야기하고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면서 아주 깊은 친구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는 아모스의 섬세함, 우아함, 부드러운 손길, 조용한 목소리, 보석처럼 빛나는 눈빛에 감탄했습니다. 아모스는 보리스의 거대함, 당당함, 엄청난 힘, 굳은 의지, 풍부한 목소리, 그리고 친절함에 탄복했습니다. 보리스와 아모스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마치고 아모스와 헤어질 때 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영원한 친구가 될 거야.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못하겠지? 너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결코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아모스는 자신도 보리스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보리스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두 친구 모두 알 수 없었지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세월이 흘러 둘이 어른이 된 어느 날, 이번에는 보리스에게 닥친 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파도에 밀려 바닷가로 떠밀려온 보리스에게 이번에는 아모스가 구원자가 됩니다. 아모스의 요청을 받고 달려온 친절할 꼬끼리 친구들이 보리스를 코로 밀어 물속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이때 아모스의 모습은 “한 꼬끼리의 머리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꼬끼리의 머리에 올라가 힘껏 소리 지르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을 보는 독자들은 누구나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바다로 들어간 보리스는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스와 아모스는 두 번째 이별을 맞게 됩니다. 작별인사를 하는 큰 고래 보리스의 뺨 위에도, 작은 생쥐 아모스의 뺨 위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결코 잊지 못하리라는 것도요.”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우정’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작품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여러 번 읽게 되면서 ‘모험’도 ‘우정’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의 우정은 아모스의 모험(바다 여행)과 보리스의 모험(아모스와의 친구 되기)덕분에 시작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모험을 통해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 만나게 되었고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서로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은 그림책은 어린 유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어주는 것이 많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소토 선생님’이 등장하는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 두 권을 제외하면 그의 작품에는 매번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한결같이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늦게 그림책 작업을 시작해서일까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와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100세 생일을 몇 년 앞둔 2003년, 그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담은 「모든 사람이 모자를 썼을 때(When everybody wore a hat)」를 출간하였는데 이것이 어린이 독자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살터, 패널위에 혼합재료, 2008

박환, 빈자(貧者)에게 바치는 헌사

서성록(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달동네를 박환만치 실감 나게 그려낸 작가가 또 있을까? 그는 달동네를 가슴 찡하게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비좁은 골목길 사이로 난 경사진 계단과 웅벽, 비바람에 날고 삭은 담벼락,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졸고 있는 가로등, 마구 엮이고 설긴 전깃줄, 낡은 흙집 등 모질게도 웅색한 풍경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 속에 어질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곽재구 시인의 표현처럼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는 금세 현혹되지만 가난하고 초라한 것에는 불편해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의 기대를 일부러 저버리더라도 하듯이 그의 작품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등장하지 않는다. 철저히 그런 기대를 저버린 채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는 마을을 등장시킨다. 그 속의 거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불가항력적으로 가난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혹자는 충격을 넘어 낭패감을 받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그런 풍경을 보면서 대낮에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적잖이 당혹감을 느껴

야 했다.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은 것처럼 갑자기 6, 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익숙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도 낯설고 불편하게 보이는 것일까? 솔직히 말하면 캄캄한 들판을 헤매는 성난 이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심란한 밤의 풍경

그의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야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밤은 하루의 일과를 접고 휴식하거나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고 침묵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사람, 밤늦도록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잠자리를 뒤척이는 사람, 겨울의 추위로 오들오들 떠는 사람 등등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야경은 연인들에겐 더없이 안온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나 그의 작품에선 웬지 서글프게만 다가온다. 밤 풍경은 절박감을 한층 극대화하는 극적 효과마저 지니는 것 같다. 그가 밤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만큼 자신들의 고독함을 잘 웅변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그림에선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오직 고요함, 아니 적막감이 화면을 뒤덮을 뿐이다. 밤과 달동네를 연관시키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삶이 어떤지 극대화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연탄재들과 쓰레기, 그 혼한 개 한 마리조차 보기 어려운, 침울한 분위기는 그의 작품을 마치 단숨에 삼켜버릴 것처럼 기세등등하다.

작가는 작품의 심란한 분위기를 가중시키기 위해 버려진 폐자재를 이용한다. 그의 모든 작품에 사용되는 구차한 행색의 베니어, 그러니까 이끼가 끼고 너털너털한 합판이 그것이다. 쓰레기통 속에 있어야 할 베니어가 그의 작품에는 없어선 안 될 필수품으로 애용되는데 그 재료는 자연이 만들어준 표정 때문에 그림을 더욱 무겁고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기존재료를 가져다 사용하니 별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환의 작업은 베니어를 전국을 돌아다니

며 모으고 가공하는 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화면에 붙이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가령 그가 지붕의 기왓장을 표현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레데이션은 혼합된 물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베니어판이 지닌 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을 바꾸면 진한 색깔에서 연한 색깔까지 모두 베니어의 물성에서 얻어진 것이란 얘기이다. 색깔을 입힌 베니어가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베니어의 물성에 의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풍부한 명암차이를 얻기 위해 그가 얼마나 방방곡곡을 헤매며 많은 베니어판을 모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을씨년스런 기왓장과 판자 지붕의 질감 역시 베니어를 여러 차례 쌓아올려 얻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물질의 고유함을 보존하면서도 사물의 섬세한 표정을 얻어내는 것이 박환 작업의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의 그림을 보고 부유층에 대한 분노나 사회갈등 같은 사회비판을 떠올렸다면 그것은 박환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의 작품에는 가난의 시련 못지않게 실낱같은 희망의 자락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살터〉란 작품을 보면 적막한 가운데서도 집집이 노랑 불빛이 흘러나온다. 밀집된 집 사이의 미약한 불빛이라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 빛은 작품에서 중요한 의



고요, 패널위에 혼합재료, 2008



미가 있다. 이 작은 불빛은 우리 미래를 밝히는 소망이고 기쁨을 상징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기아로스쿠로가 작품의 의미를 극적으로 바꾸어주고 있다.

〈고요〉에서는 집에서 흘러나온 빛 대신 가로등이 그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 차가운 밤 공기까지 감돌아 동네는 외딴 섬같이 적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집집이 비추고 있으며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다. 낡고 삭은 지붕과 불빛이 대조를 이루며 오묘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웅색한 집이지만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포근히 잠자는 아이를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웃집〉에서는 담장 너머로 자그마한 오두막집이 등장한다. 주위는 이미 칙칙 같은 어둠 속에 휩싸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몇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라도 방긋 웃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가난이 이들을 옥죄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집에는 웃음이 넘친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출입구를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진실성의 승리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작은 소망들이 서로 힘이 되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작가는 오늘도 발품을 팔아 수집한 베니어판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다듬는다. 그리고 보면 박환은 생기 없는 마을에 희망을 불어넣으려는 작가이다. 그는 외롭고 지친 사람들,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그리지만 그 속에는 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미안함이 각인되어 있다. 누굴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이웃의 한

사람으로 그들을 껴안고 있다. 눈물, 연민, 긍휼을 담아 희망으로 바꾸어보려는 점이 눈물겹게 다가온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의 작품은 가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헌사랄 수 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묘사의 박진성이 있다고 해도 진실성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가난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이들 마음속의 희망마저 앗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만, 작가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다. 작가는 화려한 외형보다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그림은 건강하고 정직하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화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의 그림은 손끝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촉촉한 가슴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그의 작품이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대는 것은 작품이 그만큼 깊은 호소력을 지녔다는 표시가 아닐까.

춘천에 있는 박환의 작업실을 다녀오는 길은 활기가 넘쳐 보였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풀냄새와 청풍, 들판을 뒤덮은 연초록의 웅단, 부드러운 능선 위에 비추는 의기양양한 햇살 등등. 다소 무거워진 마음을 일거에 날려버리기에 좋은, 즐겁고 화창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자연은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하건만 박환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툼한 옷을 몇 겹이나 끼워 입고 봄날의 햇살이 비추기만을 학수고대한다. 따뜻한 햇살이 양지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쫄쫄 언 그늘 속의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지길 소망해본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배음과 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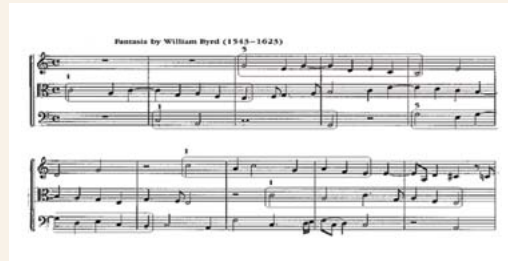
이경원(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

지난달은 소나타와 배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배음은 소리로만 존재하는 음향 현상이 아니다. 고전 시대 소나타의 곡의 전체 구조에 있는 통일성, 주제와 전체와의 연결성 모두가 배음이 만든 꽃이요 열매들이다. 소나타라고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5도 위의 구성은 고전시기의 거의 어느 곡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익히 아는 조표(#,b)의 순서(파-도-솔-레-라-마-시)와 이에 따른 조 사이의 관계(C-G-D-A-E-B-F#...) 또한 배음의 5도권(cycle)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증거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크 시기의 중요한 장르인 푸가에서도 배음에 우세한 5도 구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모테트motet, 샹송chanson, 칸초나canzona, 리체르카lericercare, 판타지아fantasia 등의 공통점은 처음 나오는 선율을 계속 모방하여 *대위법적으로 실로 옷을 짜듯이 곡 전체를 엮는 것이다. 푸가의 전신이라 보면 된다. 한 곡에 2개 혹은 3개 이상의 주제를 사용하다가 점차로 줄어들어 17세기에 이르러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곡 전체를 조직한다. 다음 악보는 르네상스 영국의 작곡가 윌리엄 버드 William Byrd의 작품 “판타지아”이다. 처음 1음으로 시작한 주제가 연속해서 1도와 5도 음으로 윗성부, 아래성부에서 약간의 변형과 함께 따라온다. 곡 전체적으로는 3개의 주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해진 수를 가지고 곡 전체에 걸쳐 대위적으로 짜넣는 기법은 매우

배음은 소리로만 존재하는 음향 현상이 아니다. 고전 시대 소나타의 곡의 전체 구조에 있는 통일성, 주제와 전체와의 연결성 모두가 배음이 만든 꽃이요 열매들이다. 소나타라고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5도 위의 구성은 고전시기의 거의 어느 곡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오래된 관습으로 20세기 작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바흐의 작품인 푸가를 보면 오직 한 개의 주제를 사용하는데, 주제를 수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고도의 지성과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이 공존한다. *주제를 변형시키는 방법--- inversion(주제를 물에 비친 산 모양처럼 선율을 반대로 만들), retrograde(주제를 끝에서부터 뒤집어서 만들기), augmentation/diminution(주제 선율의 길이를 확대하거나 줄임) 등. 여는 예술품(master works)들, 예를 들면 건축이나 그림 등에서 느껴지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그의 음악에서도 만날 수 있다. 대표적 푸가 작품들인 J. S. Bach의 푸가의 기술(The Art of Fugue), 평균율(WTC: Well Tempered Clavier), 음악의 헌정(Musical Offering) 같은 곡에서 그 정점에 이르는데 수학적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은 바흐 평균율 2번, C단조의 제시부이다. 1음에서 시작하는 첫 주제가 5도 간격으로 모방하며, 다시 원조의 1음으로 주제가 사용된다. (주제subject - 응답answer-주제subject)



곡 전체의 구성과 맞물려 있는 푸가 기법을 구별하고, 내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면상 곡 전체를 다룰 수 없고, 화음과 대위법에 대한 이해 없이 곡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서 매우 아쉽다. 그러나 곡의 첫 부분인 제시부 exposition에 나오는 3번의 주제를 통해 전체를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C단조(3 flats)의 1음으로 주제가 시작되고, 마디 3에서 5도 위의 음에서 주제가 나오는데 마치 G단조(2 flats)의 영역을 보는 듯하다. 마디 5와 6의 도움(episode: transition의 역할)을 받아 다시 원래의 1음, C 단조에서 다시 주제를 반복하는 형태이다. 곡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5도 위의 조인 G단조가 곡 중간에 중요한 목적지점이 되고 다시 원래 조key인 C단조로 돌아오는데 G key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이 가능한 것은 G key의 역할 혹은 기능(배음에서 가장 우세한 5도 위의 음)이 C key로 돌아가도록 배음에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DMA)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DCTY)」이 있다.

다. 배음은 단지 음향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2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근원이요, 음악적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곳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아름다움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이고..

푸가 스타일은 기악곡 외에도 성악곡 등에도 쓰였는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물론 18~19세기 고전/낭만 작곡가인 하이든, 베토벤,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브람스, 베르디 등이 미사나 오라토리오 안에 혹은 심지어 교향곡 중간에 푸가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소나타에 있던 원리가 이곳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소나타와 달리 푸가는 형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에 언급했듯이 하나의 대위법적인 contrapuntal 짜임새의 연속적인 과정process이다. 배음의 원리가 푸가에서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작곡가들의 작품들에는 배음의 원리로 충만하다. 역사적 증거가 악보로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음악의 원재료들은 음악가의 마음과 생각을 한정 짓고 제한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내포한다. 그렇다면 왜 현대음악이 추구하는 파괴와 일탈, 혹은 분열 등, 파괴를 위한 파괴는 어디서 오는가? 다음의 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청소년의 폭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교회

김성은(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교수)

우리보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문제를 다뤄 온 서구와 미국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랄 때 남을 괴롭히거나 폭력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연구들은 아이 개인의 특성, 가족의 특징, 그리고 친구 및 사회적인 영향과 아이의 폭력 행사 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가족의 특성-부모 역할 및 부모 자녀 관계-의 영향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나는 이런 서구사회의 연구물들이 학교폭력의 해결이 내 아이의 보호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들은 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논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건강한 아이로 키워질 수 있을지를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가족관계와 부모 노릇이 사회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 우리 사회의 부모들에게 좀 더 책임감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아이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가족관계와 부모 노릇에 집중하여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아동, 청소년과 청년들의 폭력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고,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한 개인의 폭력의 연속성을 알아볼 것이다. 세계 최초로 청년폭력(youth violence)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미국 질병통제국(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보고를 따르면 2000년도에 세계적으로 10~29세의 청소년과 청년 중 199,000이 살인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10~29세 청소년과 청년 중 하루에 565명이 폭력으로 살인 된 셈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남미국가들에서 아동과 청년의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커리비안의 국가, 러시아 및 남동부 유럽 국가의 순서로 폭력으로 말미암은 아동과 청년의 살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폭력으로 말미암은 살인이 더 심각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이 아닌 폭력-신체를 사용하거나 칼이나 곤봉 등의 기구를 사용한 폭력-의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과 청년 폭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많은 요인 중 '아동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폭력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000명의 남성 중 26세에 폭력을 행사

했던 사람들은 이미 10살과 13세에 이미 심각한 공격성을 보였고,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도 20세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청년의 1/3은 20~41세 사이에 또 폭력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에서 약 1,50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이 남자들이 7세, 10세, 13세 때에 공격성을 조사하였는데, 어릴 때 공격성을 보인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패거리로 몰려다니거나 깡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이가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들은 아동기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남을 보이는데 이를 사회과학에서는 생애과정에서 지속하는 발달경로(life course persistent development pathway)라고 한다. 이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예방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중재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가 긴밀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고, 부모로부터 건강한 학업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때 혹은 부모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 아이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적다.

공격성을 띄는데 영향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아이가 공격성을 띄는데 영향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특히 가족의 어떤 특성이 아이가 공격적이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되는 데 영향을 주고 어떤 특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가 되는데 영향을 주는가? 사회과학에서는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위험요인들(Risk factors)이라고 하고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호요인들(protective factors)이라고 명한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 관련 보호요인으로 '아이들의 가족들과의 유대감', '아이들이 부모와 문제들을 논의하는 능력',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신앙', '부모의 아이에 대한 건강한 학업의 기대' 등

을 밝히고 있다. 즉,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가 긴밀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고, 부모로부터 건강한 학업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때 혹은 부모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 아이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방식에는 일관적인 훈육과 절제를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가족관계와 가족의 어떤 특성이 아이들을 폭력적인 아이로 자라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가? 미국의 연구들을 따르면 권위주의적이고 혹독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자녀양육, 아이들과 부모의 낮은 애착 수준, 부부간의 높은 갈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관심, 혹은 자녀가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될 때 아이들이 폭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우울증이 심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가 있어주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모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때도 있고, 또 우울하게 되거나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결국, 이런 연구들과 일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특성 및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가 가족을 진정으로 돕는 도구가 되려면,

이런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는 우리에게 좋은 가족 및 부모교육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초를 마련해 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부모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부



모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줄 것인가?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고 지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길은 무엇일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특히 아이들이 열 살 정도가 되어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보다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선호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게 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부부교육과 부모교육은 대부분이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skills) - 의사소통기술, 상대방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기술, 갈등을 잘 해결하는 기술 등 - 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유용성에도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천차만별이고 효과에 대한 검증 자체도 모두 이뤄지지 않아서 시간적인 제약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갖는 부모들에게 기존의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에 가족에게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습득했던 기술들은 회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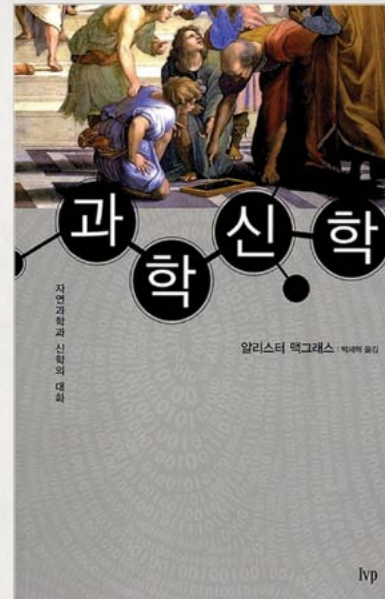
이런 서구의 폭력과 가족프로그램 관련은 그 유용성에

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방향성과 가치에는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 부모와 가족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남긴다. 인간의 행위와 마음의 변화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에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들이 영향력을 가족을 진정으로 돕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있을 때만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폭력적인 아이로 클 가능성을 줄이고 우리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결국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폭력과 관련된 사회과학의 중요한 성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됐을 때만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나아가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해법을 통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더 적극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부모를 교육하고 가정과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쓰며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성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렌디와인 캠퍼스(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과학신학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 박세혁 역 옮김 | IMP 펴냄

◎ **유정철**(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왜 이제야 소개되었을까?

『도킨스의 신(Dawkins' God, 부제: 리처드 도킨스 뒤집기)』과 『도킨스의 망상(Dawkins Delusion 부제: 만들어진 신이 외면한 진리)』로 친숙한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저서 『과학신학, The Science of God』이 지난 연말 IMP를 통해 번역 출간되었다. 원서의 출간일이 2004년 6월 21일이니, 2004년 12월 6일에 출간된 『도킨스의 신』이나 2007년 5월 25일에 출간된 『도킨스의 망상』보다 먼저 출간되었다. 그런데 왜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보다 늦게 이제야 소개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내가 기독교대학 채플이나 기독교 동아리 그리고 각종 기독교 모임 등에서 강의할 때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했지만 『과학신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은 현재 많은 젊은 지성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쳐온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 공격하는 형식을 빌려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격의 대상이 명확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써졌다. 반면, 『과학신학』은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는 형식을 취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렵다.

내 기억 속 알리스터 맥그래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영국 유학 시절인 1991년 무렵이다. 그때 나는 옥스퍼드대학 동물학과에서 행동생태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그동안 연구해 오던 생태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전공하려고 몇 분들에게 자문하고 있었다.

한 번은 옥스퍼드 위클리프 신학교(Wycliff Hall) 모임에 참석했다가 당시 학장님으로 계셨던 Dr. R. T. France 교수님과 나의 진로를 바꾸는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다. 그때 Dr. France 교수님은 나에게 자신의 위클리프신학교에 알리스터 맥그래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도 옥스퍼드대학에서 생물화학을 전공하고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성공한 분이라고 한 번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잠시 영국을 방문했던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목사님과 장춘단교회 홍순우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고 계속 행동생태학을 공부하기로 하면서 그와 만나진 못했지만, 그 후 나는 그의 책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그의 과학신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내가 속해 있던 옥스퍼드 동물학과 리처드 도킨스 교수의 책들을 반박하는 책들을 내면서 그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서평을 쓰는 것이 나에게서는 즐거움이였다.

쉽게 썼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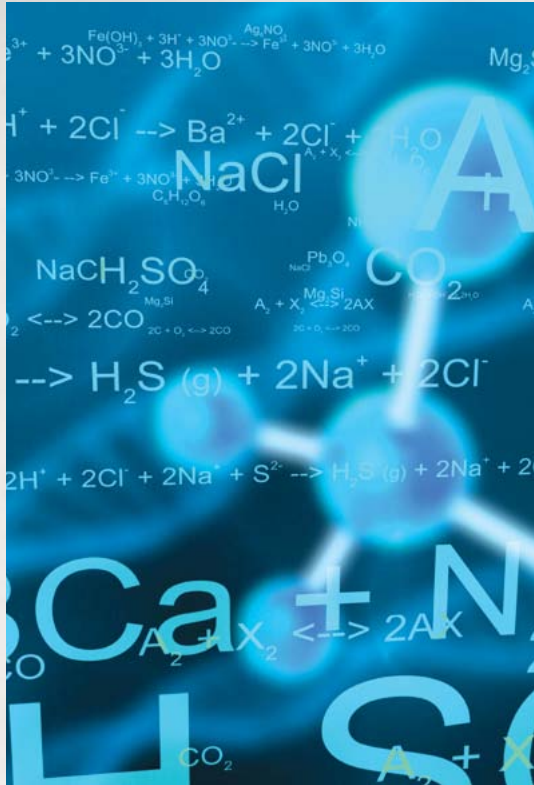
머리말에서 이 책이 신학적 방법론을 다룬 『과학적 신학, A Scientific Theology: 2001-2003』 3부작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부 서설만 보더라도 신학과 자연과학이 대화하여야 하는 존재론적 당위성과 과학적 신학의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연구방식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이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책 끝 부분인 [4부 이론] 부분까지 읽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부 자연]에서는 기독교에서의 자연과 창조섭리 그리고 자연신학의 목적을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가장 기독교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자연에 관한 기독교 전통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지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정답을 바로 내놓지 않는다. 기독교 창조교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교리가 자연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런 유의 책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이 책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부 실재]에서는 자연신학과 전통을 초월하는 종교적 추구와 기독교 전통의 합리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자연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기독교 전통이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전통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석적 도구의 역할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자연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부 이론]에서는 교조적이지 않는 기독교의 문제점과 함께 교리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교리의 발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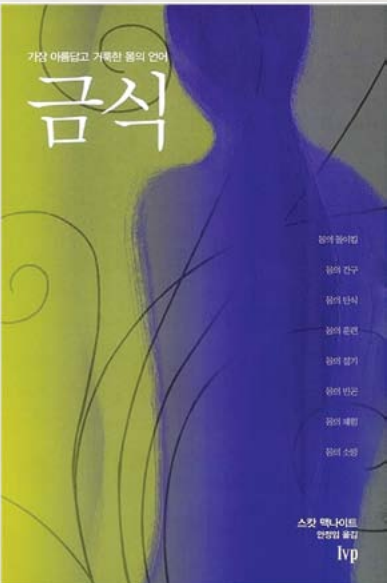


유정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행동생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행동과학>, <행동과 사회>, <환경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한국조류학회 회장이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대한 "최선의 설명을 추론"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무엇이 최선의 설명인지? 다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과학신학』은 분명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요약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자연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분명 좋은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 진지하게 하나님과 자연과학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금식

스캇 맥나이트 지음 | 안정임 옮김 | IVP 펴냄

☺ 최현일(효산의료재단 의과학생명연구원 연구원장)

좋은 책을 만났다.
스캇 맥나이트의 『금식』이라는 책이다.
제목이 나의 시선을 책에 머물게 하였다.
금식.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 금식해본 것이 손으로 꼽을 정도도 되지 않는 나에게 IVP에서 경건 시리즈로 나온 이 책의 제목은 금식이라는 의식 앞에서 죄책감을 느꼈던 나의 기억을 되살려 놓았다.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했던 나는 교회에서 금식하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금식해야 남들 보기에도 명분이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남들이 금식할 때 나는 죄책감을 가져야 했다. 지금까지도 풀기 어려웠던 이 문제를 저자는 명쾌하게 성경적 근거와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풀어 주었다. 올바른 금식의 큰 그림을 알려주었다.

저자는 금식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몸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의 온전한 유기적 통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유기적 통합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몸과 정신, 영혼과 마음 등, 모든 인간의 측면들이 본래 하나라는 것이다. “성경은 몸을 그릇에 담듯이 몸이 영혼을 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영이며 동시에 몸이다. 즉 기독교는 인간의 이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원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을 가진 하나의 존재일 뿐 외면과 내면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몸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회복하려는 저자의 설명은 금식은 유기적 통합체인 우리 몸의 영성임을 강조한다. 즉 성경적 금식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몸과 영혼이 하나인 원래의 의미로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식은 전 존재로서의 반응이며, 통합된 영성의 표현이다. 금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반응의 하나로서 드러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선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금식은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금식을 정의한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무엇인가에 전 존재를 집중해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반응임을 일깨워준다. 이 말은 금식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결단적 반응임을 알려준다. 내가 원하는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결단적인 반응으로서의 금식이라는 서술은 금식에 대한 내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어떤 목적을 위한 금식의 행위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내 생각은 저자의 성경적 해석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다. 누군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라고 묻지 말고 “어떤 일이 있기에 금식하나요?” 라고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금식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 몸의 통합적인 반응임을 확인해야 한다.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로서 나는 수술을 전후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식에 관한 다른 측면에서의 유익을 볼 기회가 있었다. 보통 복부에 수술해야 하면 수술 전에 위장을 비워야 하므로 수술 전에 관장과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장내 가스가 나올 때까지는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때의 금식은 완전금식이다. 물론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환자는 수술 후 이삼일 동안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수술 부위 상처의 통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먹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다. 그러나 퇴원할 때쯤 환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먹지 못하는 기간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몸이 힘들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좋아져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의 면회도 찾아지면서는 다시 이전의 삶의 패턴과 생각들로 채워지더라는 것이다. 절실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의지적으로 선택한 금식은 아니고 수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금식이지만 나는 환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캇 맥나이트가 설명하고 있는 몸의 돌이킴의 한 부분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회심의 돌이킴과 같은 은혜의 장엄한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식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비록 수술하기 위해서지만 금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 몸과 영혼은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체라는 것이다. 몸의 돌이킴은 영혼의 돌이킴을 가져오고 영혼의 돌이킴은 몸의 돌이킴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이므로,

따라서 몸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를 표현해 준다. 저자는 이 사실을 누차 강조하면서 금식은 우리 몸의 돌이킴, 몸의 간구, 몸의 탄식, 몸의 훈련, 몸의 절기, 몸의 빈곤, 몸의 체험, 몸의 소망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전인적 반응임을 풀어간다.

이런 자연적이고 전인적인 반응, 어떤 목적을 바라거나 나의 의지대로 금식이라는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압도적인 상황에서의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현재 효산의료재단 의과학생명연구원 연구원장이며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생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2003년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수학하며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과 교류를 쌓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식, 그것은 남들이 하는 금식을 따라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나의 나약한 의식을 깨워주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마지못해 따라 할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존재를 드러내야 할 때, 난 금식이라는 영혼의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 맛보고 싶은 그것을 스캇 맥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멋지게 그려내고 있다.

“자연스러운 금식으로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식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께 공감하게 되고 엄숙한 상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죽으면 하나님도 비통해하신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특히 가공할만한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애통해하신다. 나라의 운명이 위협 받을 때 하나님도 깊은 시름에 잠기신다... 중요한 것은 금식이 하나님의 관점과 슬픔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다면 금식은 단지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가는 값진 여정이다.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기쁨 중의 하나는 책을 통하여 또 다른 좋은 책을 소개받는 것이다. 인용한 책들의 목록을 통하여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책의 내용 가운데 저자가 영향받은 책을 소개할 때 더욱더 그 영향력은 크다. 스캇 맥나이트는 내용의 곳곳에서 자신이 읽었고 영향받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책을 읽어 나가는 여정에 단비처럼 다가온다. 또한, 부담되지 않는 크기와 스타일로 제작된 책이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주제를 핵심적으로 풀어나가는 저자의 서술 방식은 초점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와도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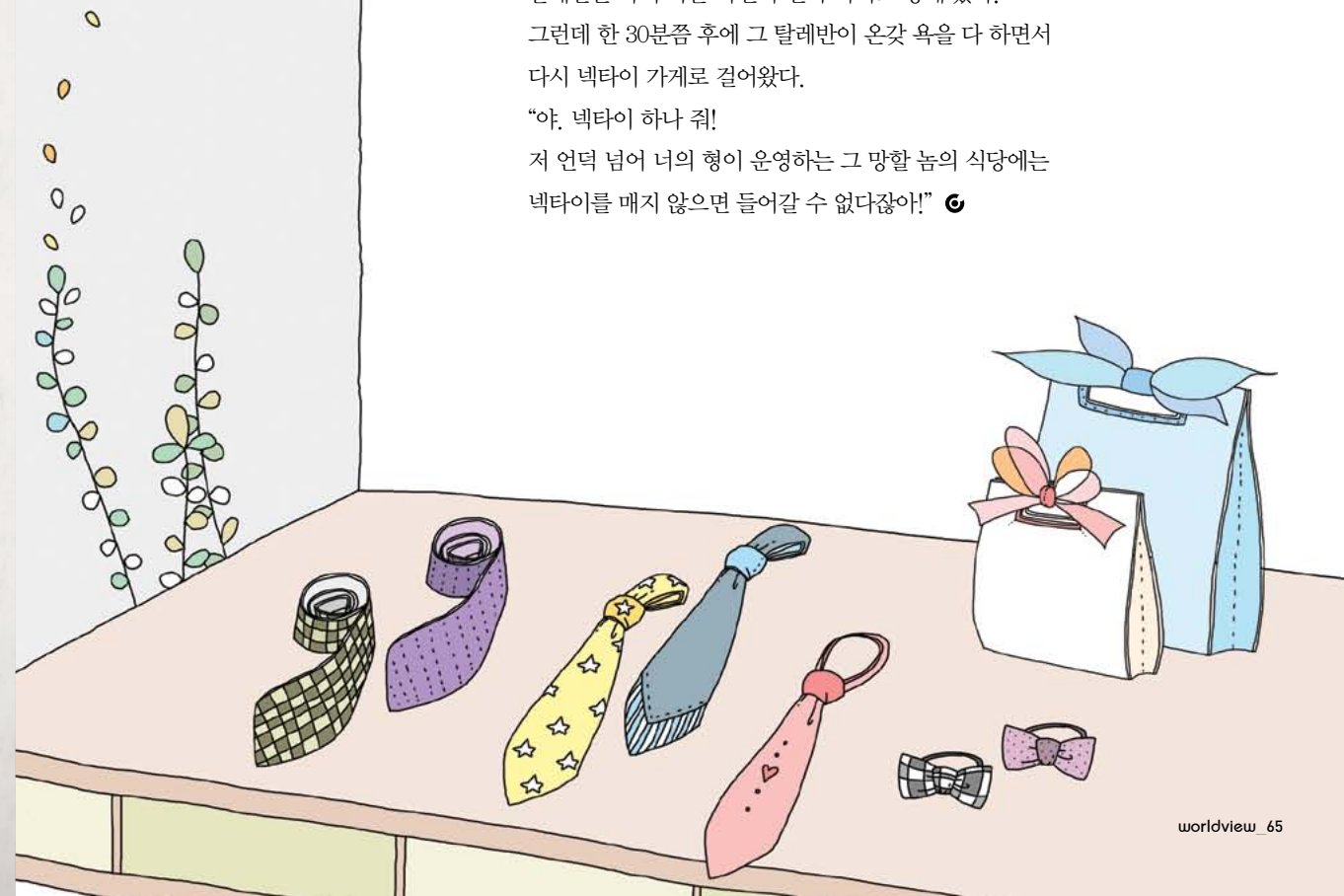
스캇 맥나이트는 나의 금식에 관한 잘못된 편견과 부담의 원인을 치유해 주었고, 더욱 더 깊고 명확한 의미가 있는 금식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었다. 금식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를 심어주는 탁월한 저자의 책이다. ☺

유대인의 넥타이 가게



아프가니스탄 사막 한가운데 유대인 한 사람이 가게를 차려놓고 넥타이를 팔고 있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탈레반 전사 하나가 가게에 찾아왔다. “넥타이 하나 사시겠습니까?” 주인이 물었다.

탈레반 전사가 버럭 화를 내며 욕을 했다. “이 사막 한가운데 넥타이는 무슨 말라빠진 넥타이냐? 물 한 모금 마시러 왔다.” “이 가게는 넥타이 가게입니다. 물을 사시려면 저 언덕 넘어 식당에 가 보십시오.” 탈레반은 다시 욕을 하면서 언덕 너머로 향해 갔다. 그런데 한 30분쯤 후에 그 탈레반이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다시 넥타이 가게로 걸어왔다. “야, 넥타이 하나 줘! 저 언덕 넘어 너의 형이 운영하는 그 망할 놈의 식당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잖아!” ☺



WORLDVIEW NEWS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2012년 5월 18일~19일 이틀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한중국제학술대회 및 춘계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18일에 있었던 한중국제학술대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절강대 기독교와타 문화연구소 학자들과 교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9일 '기독교학문의 연구현황과 과제 II'라는 주제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법학분야, 의료분야의 기독교학문이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학원 분과 발표 논문중 "C. 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상상력: 관계맺기에 대한 마르틴 부버의 통찰을 중심으로" (조성진, 성균관대),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영역을 중심으로" (박민선 · 박혜련, 서울대)의 논문이 청년기독교학술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대학원 4개 분과, 일반 · 교수 8개 분과에서 다양한 주제들과 열띤 토론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개최되는 기독교학문학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CTS-VIEW 1.5+1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ATCS, 원장 이숙경)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원장 양승훈)이 공동으로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기독교세계관 캐나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기독교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ACTS에서 받고 방학기간에는 VIEW에서 연수를 받으며 총 30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졸업시 교육부 직무관련 연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문 의
한국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031-770-7889
E-mail: eau49@hanmail.net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Tel: 1-604-996-8439
E-mail: viewmanse@gmail.com

회원 신간안내
추태화 교수(안양대)의 신간 '권력과 신앙'이 CKoBooks에서 출간되었다. 현대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이 어떠한 경로에서 기인했는지 1930년대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여 "실용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오판(誤判)으로 나치를 옹호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반면 고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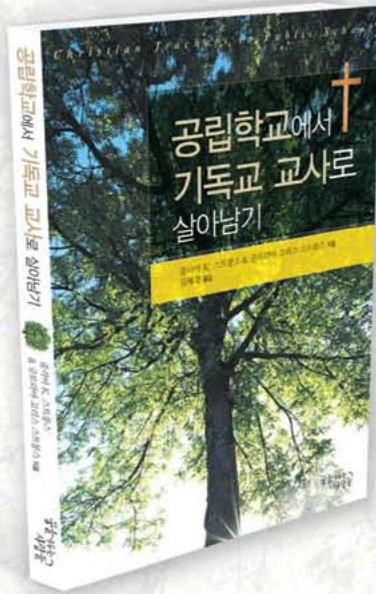


를 통해 증거된 신앙 고백에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세계관학교 설명회
주말 교회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역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기독교세계관학교 설명회와 지도자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일시: 2012년 6월 11일 (월) 오후 7시
장소: CTC 크리스천싱킹센터 세미나실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275-5, 대화역 1번 출구, 킨텍스 방향 도보 5분 거리)
등록비: 1만원(사전등록, 등록순 20명)
신 청: 우리은행 375-184526-02-001 (예금주: 유경상)
입금하신 후 연락 바랍니다.
문 의: 한부의 팀장 010-7301-7178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립학교 기독교 교사들의** 나침반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로 살아남기
줄리아 K. 스트롱스, 글로리아 고리스 스트롱스 지음 | 김혜경 옮김 | 정가 10,000원

일반적인 교사들과 달리 기독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혼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기독교 교사가 공립학교에서 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공립학교에서 소명을 가지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좋은 안내자가 될 책이다.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김요셉 목사 추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게 주신혜주신 모든 아이들이 교사들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지혜롭게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공립학교 기독교 교사들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김요셉 목사



“누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



유능한 교사의 자질

제임스 H. 스트로지 지음 | 한소영 옮김 | 정가 12,000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아이들은 교사의 거울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며, 스스로 유능한 교사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 교사의 경험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다. -정병오 (사)좋은교사운동 대표
학교 현장에서 좋은 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씨름하고, 유능한 교사가 되기를 갈망하며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교사능력평가 체크리스트, 교사의 긍정적인 자질과 부정적인 자질, 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더 나은 교사의 자질을 갖도록 이끌어준다.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복내전인치유
선교센터
이박행 원장과
최금옥 부원장의
최신간!!



암을
이기는
치유 캠프

복내
마을
이야기

잠재적 암 환자인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의 모든 것!
누구도 안전지대일 수 없는 암의 위협을 이기는 지혜!

김중순 박사(원자력병원), 박남규 목사(사랑의교회 호스피스),
박상은 원장(안양샘병원), 이문장 목사(두레교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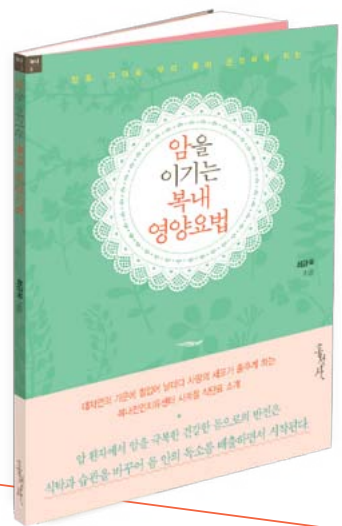
이박행 지음 | 320면 | 15,000원

언제 건강을 잃을지 모를 현대인의
면역 증진과 항암을 위한 복내 식이요법 최초 공개!

대자연의 기운에 힘입어 날마다 사랑의 세포가 춤추게 하는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사계절 식단표 첨부

최금옥 지음 | 88면 | 전면컬러 | 8,000원

암을
이기는
복내
영양요법



《암을 이기는 치유 캠프, 복내 마을 이야기》 출간 기념 독후감 및 암환자 관련 수기를 공모합니다

- **내용**: 1. 독후감-《암을 이기는 치유 캠프, 복내 마을 이야기》, 《암을 이기는 복내 영양 요법》
가운데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 주세요.
2. 암환자 관련 수기-암환자 본인의 투병 수기나 암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분들의 간병 수기,
교회 및 단체의 암환자 사역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 **분량**: A4용지 1~2매(독후감), A4용지 2~3매(암환자 관련 수기)
- **마감일**: 2012년 7월 14일(토요일)
- **참여 방법**: 글쓴이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원고 상단에 기재하여 boknae0675@hanmail.net 또는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홈페이지(www.boknae.org) '자유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응모.
- **발표**: 2012년 7월 25일(수요일)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시상 내용**: 10명: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1개월 체험권(20만원 상당)
100명: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치유 캠프 초대권(30만원 상당)
- **문의**: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사무실 T.061-853-7310, boknae0675@hanmail.net

(우리나라 최고 청정 지역인 전남 보성군 복내 마을에 위치한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는 연중무휴 휴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유캠프'는 매월 첫 주 월요일부터 5박 6일간 실시되며, 단체 및 개교회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